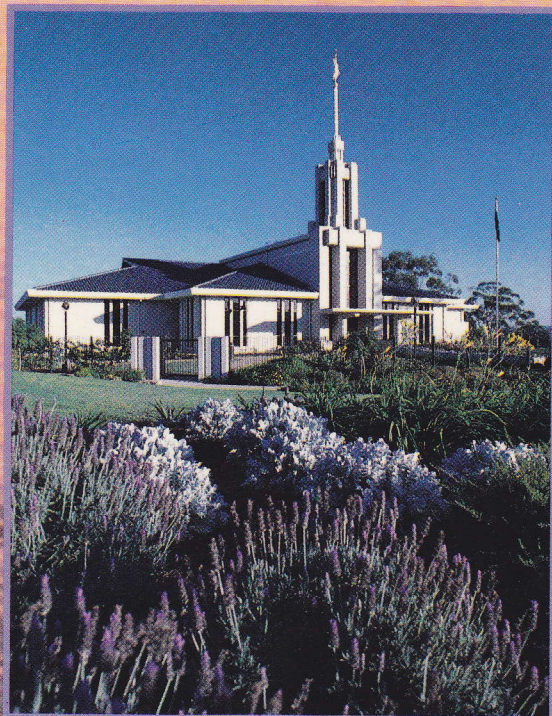


성도의 빛 8

198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

1987년 8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랜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 휴 더블류 피크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스 엠 페러모어, 테릭 에이
커스버트.

통 권 : 제256권, 제23권, 제 8 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7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연 제 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성 근
International Magazine PBMA8708KO
PRINTED IN KOREA 8/87
© 1987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빛은
중국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로는 월간으로
인도네시아어, 타히티어 및 타이어로는
격월간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어로는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의 해외 구독료는 항공편
10,000원(미화 12불), 선박편 7,000원(미화
8불)입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설명 : 바다에서 본 시드니, 사진 제공
포 바이 파이프 회사 ; 시드니 성전, 사진 촬영
마이클 엠 맥롱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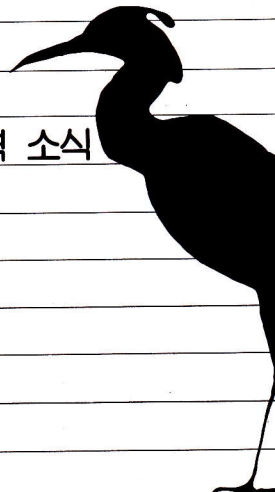
목차	29	오스트렐리아 : 이십 세기의 전반기 마조리 에이 뉴턴	
2	대관장단 메시지 : 우리를 바쳐 주를 섬기고	32	조종받지 않는 결혼 래리 케이 랭글로이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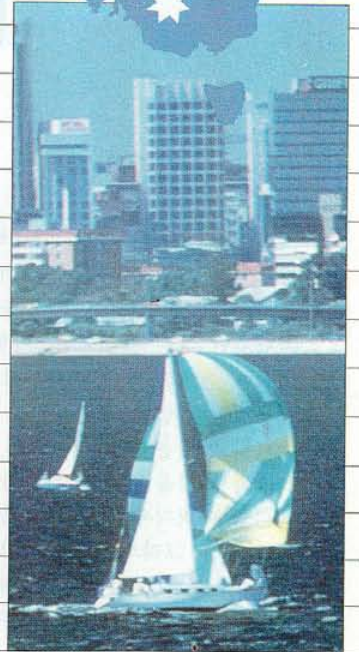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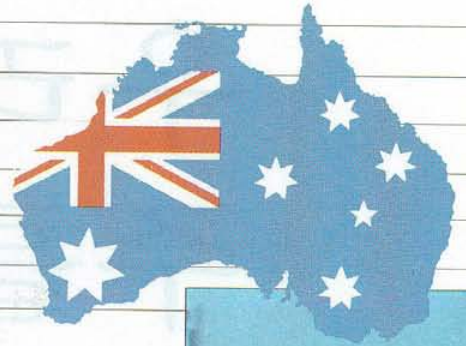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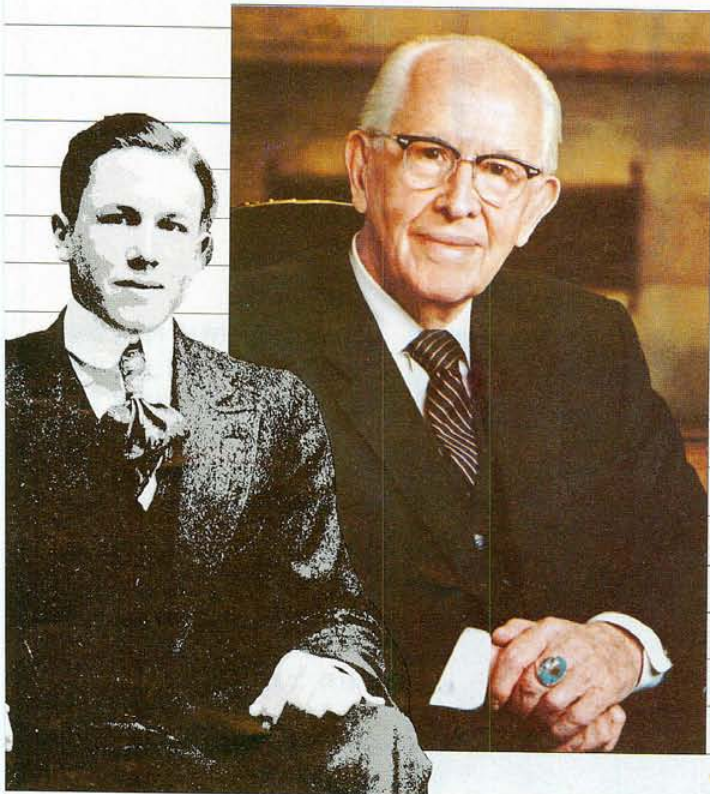
7	방문 교육 메시지 : 재정 및 자원 관리	청소년란	
		38	“더 제츠”의 가족 역사 물몬경 리사 에이 존슨
8	엘 톰 페리 장로 : 열의를 갖고 봉사함 로렌 시 딘 장로	44	Hits니 출신의 소년 맬빈 리버트
13	질 의 응답 스티브 에프 길릴랜드		

성도의 빛 어린이란

16	마사오 와타베 : 종신 선교사로 봉사함 조셉 정	2	경전 이야기 : 마음의 변화 제 1부 세리 존슨
19	어떤 아버지의 음성 로버트 더블류 파리스	4	다함께 나누는 시간 초등협회의 탄생 팻트 그래햄
20	니파이가 가르치는 것 좌절을 극복함 엘리자베스 케이 라이저	6	친구가 친구에게 : 아더 지 캡 재닛 피터슨
23	오늘날의 오스트렐리아 마이클 오터슨	8	심심풀이

26	봄 코완 : 그의 생애가 바뀐 순간	교회 및 지역 소식
27	마가렛 로슨 : 쿠누누라의 외로운 성도	





우리를 바쳐 주를 섬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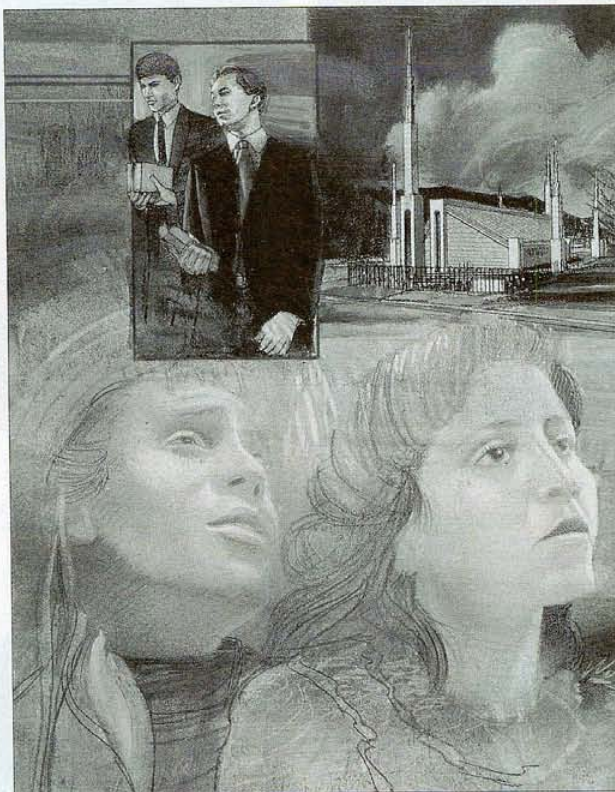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중 앙 아메리카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티 성전을 헌납한 지 삼 년도 더 지났지만 나는 지금도 그 거룩한 의식에 참여했던 그 훌륭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집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열 번의 헌납 모임에 수천 명의 훌륭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백성을 잘 아는 사람들 추정에 의하면 참석한 사람 가운데 75퍼센트 이상이 조상 리하이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랑스런 자녀와 함께 참석한 이 훌륭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나는 그들의 조상의 여러 세대를—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경배할 때 힘과 선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시대와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분을 배척하고 전쟁의 상처로부터 그들의 피가 흘러내리고 또 그들이 고통과 탐욕과 빈곤과 박해 속에서 살았던 그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시기를 거의 시현으로 볼 수 있을 것같이 느꼈습니다.

그 헌납 모임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과테말라 및 기타 중앙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의 산속이나 밀림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고 물론경에 있는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그들 자신에 관한 경전을 읽어 준 충실한 선교사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세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부터 암흑의 껍질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가운데는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와드의 감독 및 그들 백성의 축복사로 봉사하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교회 조직 내에서 진실되게 가르치며 상호부조회, 청년 조직 및 초등학교를 감리하는 강하고 훌륭한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강한 사랑과 간증이 있으며 그것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말일의 기적이며 보기에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참된 영

주님의 참된 영을 지닌 사람들을 찾으려면 세계 속의 이

지역에서 수고하고 주님에게 순종하여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주님의 예언자로부터 온 부름을 받아들인 선교사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선교사들은 그분의 대사로서 주님의 참된 영을 지니고 온 세상으로 다니며 선을 행하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출신이며 교회 회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여성으로부터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좀더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 대학교에 다니는 말일성도 대학생들이 그가 매우 어려운 학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동안에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과 여름에 일을 하여 조금씩 아껴 쓰다보면 18개월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는 기간에 생활비로 쓰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과테말라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쑥한 청년으로서 총명한 마음을 지녔고 또 고도의 기술 분야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과테말라시티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나는 “행복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네, 대단히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과테말라의 원주민인 레이멘인 사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매우 작은 곳으로써 어려움이 많지만 이 백성은 훌륭하며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여러 약속

이 재능있고 교육받았으며 정글 마을에서 과테말라 인디언 사이에서 일하는 키가 크고 말쑥한 청년을 생각했을 때 레이멘인인 사무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말일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 동포 레이멘인들에게 이를 것이며, 비록 저들이 고난을 겪으며 땅 위에서 이리저리 쫓겨 탐색되며 매에 쫓겨 널리 흩어지며 몸을 숨길 피난처가 없을지라도, 주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저들이 저들의 위대하고 참된 목자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실 이를 참되게 깨달아, 그의 양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신 예언에 의함이라.”(히라멘서 15:12~13)

이 젊은 선교사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원주민 사이를 걸으면서 그들이 그의 양으로 헤아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저들의 위대하고 참된 목자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실 이를 참되게 깨달아” 알도록 참된 지식을 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젊은이는 그의 부모로부터 편지나 돈이나 격려를 일체 못 받았습니다. 그는 십 팔 개월 동안 생활할 돈을 충분히 저축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기간을 십 팔 개월에서 이십 사 개월로 늘리고 있을 때 그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육 개월을 더 머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부장에게 열심히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게 된 이 백성들 사이에서 육 개월 더 일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선교사의 경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을 한 사람 찾았으며 그리하여 그 선교사는 완전히 이십 사 개월 동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이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이 선교사처럼 사방으로 다니며 주님의 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장

내가 과테말라에서 만난 또 다른 한 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과테말라 성전장인 존 오도널입니다. 그는 회중 앞에 서서 감격하여 목이 메인 음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 농학 부문의 학위를 받고 아리조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미국 농무성에 취직되어 제 2차 세계 대전 때 굉장히 필요한 고무를 조달하기 위하여 천연 고무 나무 재배를 개발하는 사업에 종사하도록 과테말라로 파견되었습니다.

내 기억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십 사 년 전 과테말라로 올 때 저는 스물 네 살로서 미혼이었습니다. 저는 구세주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자라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매일매일 이 산맥과 정글속으로 이 땅의 원주민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빈곤과 암흑 속에서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순수한 사람들이지만 복음의 빛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외쳤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능한 한 가지 확실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얻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들 조상의 기록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윽고 저는 어떤 아름다운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영국과 독일의 혈통 및 리하이, 레이멘, 사무엘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으며 산속의 이 원주민들 사이의 작은 집에서 신혼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언젠가는 이 백성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과 또 그들이 힘차고 아름답게 일어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헌납하고

“나는 1946년에 또 1947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여행했으며 교회 대관장님에게 이 땅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1947년 12월에 선교부장과 그의 보좌들이 네 명의 장로를 우리 집으로 데려 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산으로 차를 타고 가서 함께 성찬을 들고 선교부장이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땅을 헌납했습니다.

“내 아내가 과테말라 원주민으로는 맨 처음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아내는

이 아름다운 성전의 성전장의 부인으로서 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6년에 나는 큰 사고를 당했으며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으며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리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또 나는 인간의 권세를 넘어서는 어떤 권세에 의하여 내가 죽지는 않겠지만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안되리라는 가르침을 받았읍니다.”

그의 생명은 그 동안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또 행정가로서 커다란 고무 농장을 만들고 운영했으며 미국에 있는 큰 고무 공장을 위하여 타이어 공장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 가운데서 온 천하로 다니며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과테말라 원주민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십 년 이상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언어로 말했으며 그들이 슬퍼할 때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르쳤으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용하고 과묵하면서도 훌륭한 개척자로 일해 왔읍니다.

그가 정글의 오솔길을 혼자 걸어 다닐 때에는 그가 이 나라 전체의 유일한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만 사천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는 맨 처음 생긴 작은 지부를 키웠읍니다. 오늘날 과테말라에는 시온의 스테이크가 여덟 개 있으며 중앙 아메리카의 주변 국가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소수의 회원이 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읍니다. 지금은 이 나라 전역에 아름다운 교회 집회소가 있습니다.

과테말라시티 언덕 위에는 훌륭한 성전이 있으며 그 성전 꼭대기에는 모로나이의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로나이가 그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라 예루살렘이여.

오 시온의 딸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그 경계를 영원히 넓혀 다시는 흠어지지 않도록 하고,

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라.

“참으로 그리스도께도 나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모로나이사 10:31~32)

자신을 바침

존 오도널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목숨을 건지겠으나 그의 생명이 그 자신의 것이 안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뜻에 의하여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망에 따라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의 목숨은 우리 자신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아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은 특히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고서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왜 행복합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잃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왜 행복합니까?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행위 자체가 인류의 구세주의 위대한 대리 사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자신이 대리 사업을 해주는 그 사람의 이름 이외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 생명이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활한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할 경우 우리 생명을 낭비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위대하고 거룩한 신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가복음 8:35)는 것을 충분히 또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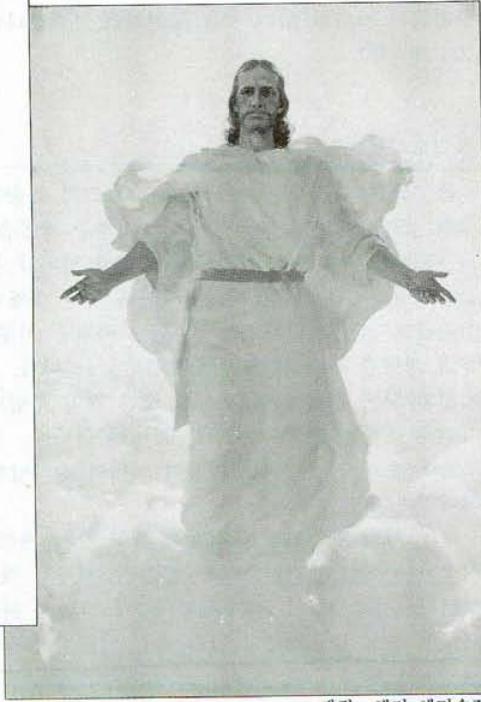
주님께서 대중 앞에서 성역을 베푸신 그 기적같은 삼 년이 이런 위대한 진리의 원리를 많이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그 원리 하나하나가 모두 훈계와 모범의 방법으로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모두 그 이후의 온 세월 동안 인류를 풍요롭게 해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우

리 모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보다 더
후하게 사랑의
손길을 뻗칩시다.



재림, 해리 앤더슨작

가운데서 이 말일에 사는 우리는 사람이 그분을 인정하고 따를 때 화평과 번영을 알게 된다는 확실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의 훈계를 저버렸을 때는 갈등과 슬픔과 고통과 암흑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보다 더 후하게 사랑의 손길을 뻗칩시다. 궁핍한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는 사람 자신이 배제된 선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은 세 사람 - “자기 자신, 굶주린 이웃 및 나[구세주]” - 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러셀 로웰, “론폴 경의 시현”, 제 2부, 제 8절)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한다면 우리의 나날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써 우리 생애는 우리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로 인하여 생활에 감동을 받는 모든 사람의 축복이 되도록 헌납될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생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우리 자신을 바쳐 봉사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3. 주님의 사업에서 자신을 잃는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과 내적인 화평이 옵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2. 이 기사 내용 중에 가족과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정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까? 감독이나 정원회 지도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나?

재정 및 자원 관리

성공적인 생활의 기본적인 요건

목적 :

우리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기 위함

“어떤 상황에서나 재정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
돌아가신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에 의하면
이것이 재정 관리의 목표이다. 그는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섯 가지 지침을 말씀해 주셨다.

(1) 정직한 수입조를 냄. (2) 수입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함.
(3) 필요와 요구를 구별하는 것을 배움. (4) 예산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함. (5) 모든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정직함. (1979년 10월 대회 보고)

우리가 자신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또 우리가 봉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반면 주의깊은 계획과 예산 수립은 우리에게 모든
부채를 해결하게 해주며 또 훌륭한 재정 관리를 위한 이
다섯 가지 원리대로 생활할 때 오는 화평과 영적인 성장을
누리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재정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관심을 갖게 되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요금을 내야 한다. 우리의 자녀는
먹어야 한다. 이 생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섯이든
둘이든 하나이든 주님께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자원과 기회와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

식구가 많은 어떤 자매는 자신의 상상력과 재능을
활용하며 남편의 봉급을 보다 더 잘 사용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녀가 돈을 절약한 한 가지 방법은 직물
가게로부터 무료로 얻은 헝겊 조각으로 어린 자녀의 옷을
직접 만드는 것이었다. 추수기가 되면 그들은 그 지방의
과수원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모아서 가공하여 가정
비축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에게는
이것이 수많은 농산물이 거저 생기는 것을 의미했다.

또 어떤 자매는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돌본 다음 막내
아들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그들
부부가 모두 일하던 시절에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보다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신중하게 저축했다. 그들은 할인 판매 기간을 활용하여
물건을 사서 식량 비축을 계속하고 그들의 돈을 주의깊게
예산을 세워 썼다. 이 자매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훌륭한
금전 관리 습관을 계속 유지했다. 또 손자들에게 그들이
저축한 것을 관리하고 정년 퇴직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는
원리를 가르쳤다. 이 자매는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과 재정
관리의 다섯 가지 원칙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을 저축했으며 지금은 자기 재산을 활용하여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자기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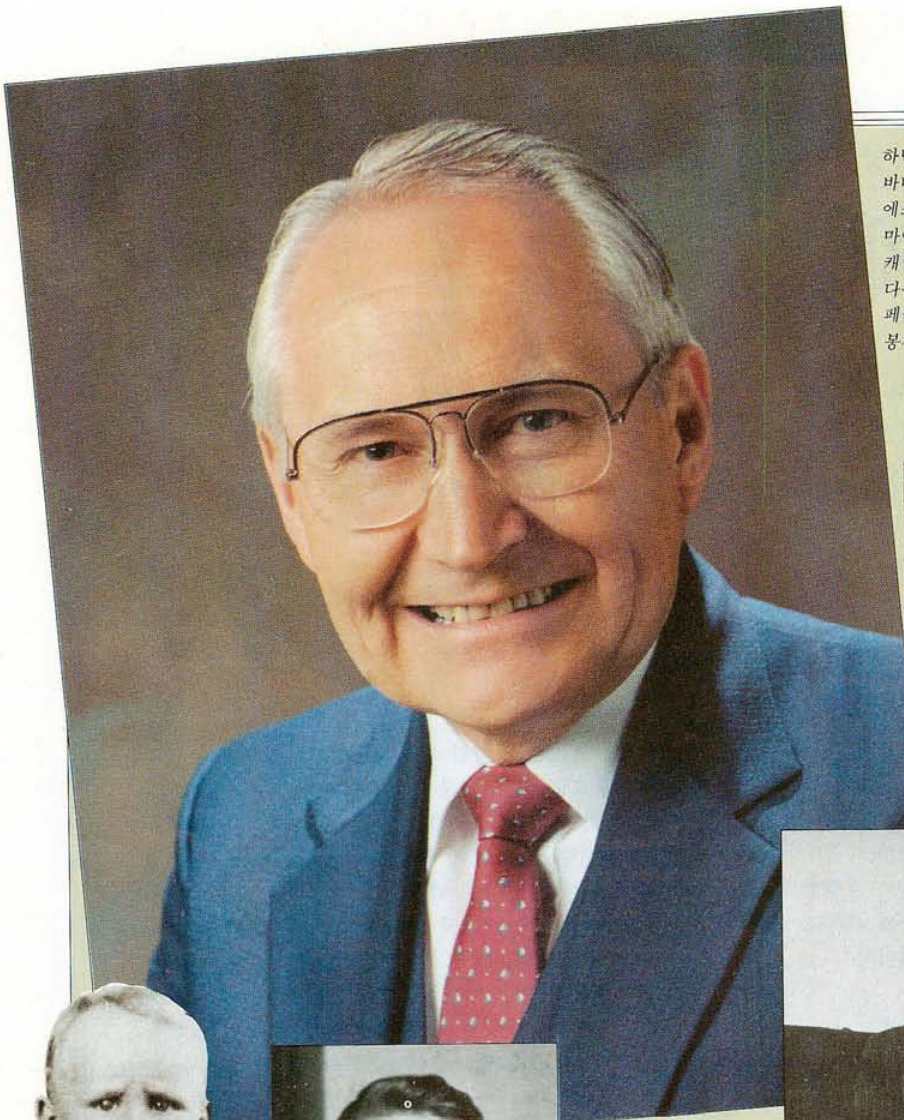
영의 인도를 간구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재정 관리의 다섯
가지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현명해질 것이며 영적인 성장과 재정적으로 마음의
화평을 축복받게 될 것이다.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태너 부대관장이 개요를 밝혀 준 재정
관리의 다섯 가지 원리를 토론한다. 이
원리가 각각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나?

2.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함으로써
어떻게 물질적인 것을 사랑할 때 발생하는
영적으로 부정적이 되는 상황에서 보호받게
되나?

(관련 자료로서 가정의 밤 자료집[PBHT 5197K0], 210~11페이지의 재정 관리를 참조한다.)



하단 오른쪽: 1980년 가족 사진: 페리 장로와 아내 바바라(중앙)가 바바라 페리 호스와 남편인 페리 및 그들의 자녀, 페리 이새와 에스더(왼쪽); 린다 게이 페리 벨슨과 남편인 마이클(중앙 뒷편); 및 리 톰 페리와 아내인 캐럴린(오른쪽)에게 둘러 싸여 있다. 다음 페이지: 레즐리 토마스와 노라 소네 페리가 자녀들(봄, 왼쪽 뒷편 포함)에게 봉사하는 것은 특권이며 축복임을 가르쳤다.



엘 톰 페리 장로

열의를 갖고 봉사함

로렌 시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로버타 켄슨은 비행기에 앉아 갓난 아기를 먹이고 다른 세 아이를 조용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모두 네 살 미만의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당혹스러워 했으며 혼자였다.

통로 맞은 편에는 짙은 색 양복을 입은 키가 크고 쾌활한 신사가 앉아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녀가 그 신사에게 말을 걸자 그 사람은 자신이 엘 톰 페리 장로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어머! 사도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니! 혹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운 것을 느끼시고 내 마음 속의 이런 느낌을 이미 알고 계실까?”라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출발하자 네 아이가 모두 울기 시작했다. 로버타의 다소 창피스런 마음은 낭패감으로 바뀌었다. 갑자기 페리 장로가 손가방을 옆으로 젖혀 두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아기를 안아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었다.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페리 장로는 줄곧 그 아기를 돌보고 먹여 주며 잠이 들도록 흔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 감사에 찬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을 조용하게 돌보고 먹이고 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가 나왔을 때 그녀는 아기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페리 장로는 여전히 미소를 띄면서 아기가 잘 자고 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여행을 해냈어요. 또한 소중한 추억을 한 가지 지니게 되었으며 그 추억은 영원히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페리 장로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셨으며 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재쳐 두신 것입니다.”

이런 사려깊은 행동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의 배경과 훈련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봉사하는 축복

로웰 톰 페리는 1922년 8월 5일 유타주 로간에서 레슬리 토머스 페리와 노라 손 페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톰이 어릴 때 18년간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그 다음 이십 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의 보좌 및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다. 그의 어머니는 톰이 부모님 슬하에서 살 동안 늘 워드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 일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봉사하는 것은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여섯 자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비결은 부모의 부름에 자녀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는 자선 봉사에 있어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사방으로 다니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셨으니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유리를 닦고 바닥 청소 및 집안 청소와 기타 아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부친도 그의 가족이 자신이 받고 있는 부름에서 함께 일하게 했다. “워드 건물은 우리의 제이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워드에 가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잔디를 깎았으며 벽을 물청소하고 건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오래된 화로에 석탄을 넣었습니다.” 또 톰과 어머니는 워드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왔다.

가정에서의 일도 가족 사업이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법률가로서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커다란 마당과 암소 한 마리와 채소밭이 있었다. 이런 집안 일에 대한 책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장남인 톰에게



맡겨져서 그는 동네에 신문을 배달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일을 맡아 거들어야 했다.

가족이 함께 함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노는 시간이었다!” 그 가족은 여름에는 가까운 산의 계곡으로 가서 낚시질과 하이킹을 하고 게임도 하고 식사를 했다. “토요일 오후는 언제나 가족이 함께 하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툼 페리는 해병대에 복무할 때도 계속 동료 군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했으며 또한 일본 사람들에게도 봉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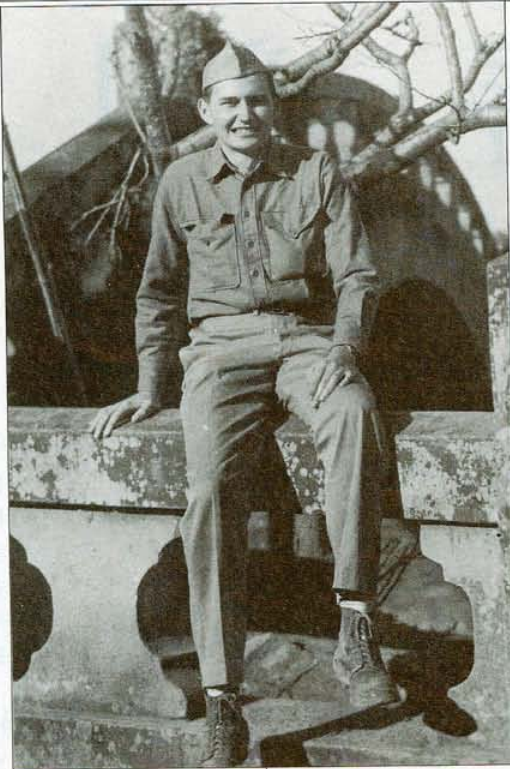
페리 장로는 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가장 어릴 때의 기억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어머니 무릎에서 기도를 드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커다란 신앙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업이 교사로서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어머니는 1910년에 유타주 농대를 졸업했다.] 어머니는 옷을 다리면서 우리가 신앙 개조를 외우거나 곱셈 구구단을 외우도록 도와 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한번은 식사할 때 의자의 등받침이 식탁을 향하도록 돌려 놓아 가족이 식사하기 전에 무릎꿇고 기도하게 했다.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무릎꿇고 가족 기도를 할 때 또 신권 소유자인 아버지가 악한 자의 화전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온 영혼을 다 바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의 방패가 더 두터워졌습니다.”

페리 장로는 간증이 없는 상태로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간증을 갖지 않기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 의하여 간증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엮여졌습니다.”

선교사 부름

그는 고등 학교를 졸업한 다음 일 년 동안 대학에 다니고 나서 1942년에 미국 북부 주 선교부로 부름받았다. 그는 세미나리에서 물문경을 읽었으나 선교사로 봉사할 때까지는 물문경에 대한 큰 사랑을 키우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으며 또 나는 물문경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물문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리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물문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증거 즉 구세주와 그의 사명에 대한 두번째 증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지육 주박에 지나지 않았을 때 군대 영장을 받았다. 그는 미해병대 근무를 지원했으며 그의 특유한 열의를 갖고 최우수 해병이 되려고 결심했다. “나는 이등이 되는 것은 무조건 싫어하며 따라서 우리가 먼 행군을 할 때면 나는 우리 줄의 맨 앞까지 기를 쓰고 나아가서 그 곳에 머물러 있곤 했습니다.”

그는 원자 폭탄이 폭발한 후 일본에 맨 처음으로 들어간 점령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록 강인한 해병대로 훈련을 받았지만 일본 사람들의 나라가 황폐한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넘쳐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그는 동료 해병대원과 함께 사이판 섬에 작은

예배당을 세웠다. 나중에 나가사키에서도 군인 가운데 마음이 맞는 사람을 모아서 어떤 신교 예배당을 다시 짓는 것을 도와 주었다. 그의 부대가 나중에 이동하게 되었을 때 거의 이백 명이나 되는 그 교회 회원이 목사님과 함께 기차가 지나갈 때 그들과 손을 잡기 위하여 기차길 옆에 늘어서 있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 대한 기념할 만한 의사 표시였다.

그가 태평양에서 복무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선교 사업의 연장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미 선교 지역에서 이 년간 경험이 있었으므로 군에 있을 때 더 훌륭한 선교사일 수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이 년 반 동안 해병대에서 침례준 사람이 선교 지역에서 침례준 사람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일성도가 된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 한 무리 있었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인하여 군대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즐거운 것이 되었습니다.”

대학과 결혼

툼 페리는 군에서 제대한 다음 유타 주립 대학에서 학교 공부를 마치고 1949년에 사업 분야의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는 그 기간에 버지니아 리에게 구혼했다. 그들은 1947년 7월

18일에 로잔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는 졸업한 다음 아이다호주에 있는 어떤 회사에 취직했다. 그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배우고 가족을 안정시키려고 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감독단 제이보좌로 부름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며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훈련받은 가르침이 그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어떤 변명보다도 더 강했으므로 그는 봉사하기로 했다.

그 결정이 그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또 직장의 임무에 응용할 수 있는 조직과 관리 기술을 배우게 해주었으므로 그의 세상적인 교육도 더 진척시켜 주었다. 그가 소매 업무에서 성공함으로써 인하여 그의 가족은 아이다호, 와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츄세츠로 옮겨 다니게 되었다. 직장 때문에 이사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교회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 기간에 그는 세미나리 새벽반에서 가르치고 두 번 감독단에서 봉사하고 고등 평의원으로 한 번 봉사하고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두 번 봉사했다. 그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을 당시에는 매사츄세츠 주의 보스톤에서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톰 페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배웠다. 그들이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그들은 이전에 보아 둔 "이상적인 집" 대신에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을 사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그 "이상적인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그는 굉장히 좋은 직장을 사양했는데 그것은 그 직장이 그가 가족을 위하여 바치는 날인 토요일 휴무를 보장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족이 많아짐

톰 페리와 버지니아 페리 사이에 세 자녀가 태어났다. 바바라는 테리 호츠와 결혼하고 리는 캐롤린 벤치와 결혼하고 린다 게이는 마이클 지 벨슨과 결혼했다. 페리 장로는 자기 부친처럼 가능하면 언제나 자신의 교회 활동에 자기 가족도 함께 참여하게 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이 그의 말씀을 타자하고 교정을 보며 그가 사용할 인용문과 이야기를 찾아 내고 심지어는 그의 말씀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의 말씀의 시간을 재기도 했다. 때때로 그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할 때 가족이 함께 동행하도록 했다.

그는 가족이 그의 직장 일에도 참여하게 했다. 자녀가 어릴 때에 그는 부인이 시장을 보는 동안 아이들이 그의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게 하곤 했다. 그들이 좀 큰 후에는 재고 조사와 경리 장부 기록을 돕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생각에는 어떤 부모이든지 자기 가족이 함께 참여하게 해야 하며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가족이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가까이 느끼며 공헌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엘 톰 페리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할 때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성별하는 특권을 누렸다. 리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부친은 자신의 감정을 많이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주시는 동안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한 장 써서 몰래 저의 가방에 넣으셨읍니다. 부친은 그 편지에서 저의 아버지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부친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읍니다. 그 말씀은 제가 선교사로 일하는 기간에 언제나 힘과 위로의 원천으로써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슬픔과 역경

페리 장로는 슬픔과 역경을 아는 사람이다. 1974년 12월에 아내인 버지니아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는 1983년 3월에 딸 바바라가 세상을 떠났다. 또 두 명의 손자를 잃기도 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오늘날 그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도록 권고해 준다. "주님은 대단히 친절하십니다. 어려운 경험도 하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추억이 넘치게 해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비극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야 할 새로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상실한 것에 대하여 투정하는 일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산을 기어오르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1976년 1월에 바바라 데이튼을 그녀의 친척이 그에게 소개했다. 그들은 그 해 4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페리 자매는 와이오밍주 코크빌 근처의 목장에서 자랐으며 유타 대학에서 간호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리고 15년 동안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말일성도 병원에서 일하며 수석 간호원, 간호 부책임자 등의 여러 가지 직책에서 봉사했다.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보건 교육학 석사 학위를 마친 다음 사 년 동안 브리감 영 대학의 간호 대학에서 가르쳤다.

페리 장로 부부는 "거의 모든 것을 함께 하며 즐긴다."고 페리 자매가 말한다. 페리 장로는 가능하면 언제나 부인과

함께 가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지 않고 차를 직접 운전하여 스테이크 대회 지명을 수행하러 간다.

주님의 깊은 사랑

그는 부부들이 “배우자에 대한 예의와 친절을 보이기 위하여 작은 특별한 일들…놀라게 하는 일…을 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페리 장로의 말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말하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는 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신사입니다. 나는 ‘언제나 먼저 차에서 내려서 내 옆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어 주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닌가요?’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내가 감사히 여기는 매우 상냥한 배려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에서 도움을 줍니다.”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아내는 주님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내와 함께 무릎꿇고 기도드리는 기회를 갖게 될 때 나는 그녀를 반려자로 갖게 된 축복과 특권에 대한 감사로 가득 합니다.”

그의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의 열성 및 기꺼이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은 그가 총관리 역원으로 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는 1972년 10월 6일에 십이사도 보조로 지지받았다. 그리고 1974년 4월 11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었다. 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그는 신앙과 격려의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는 꾸밈없는 미소와 풍성하고 맑은 음성을 축복받았다. 그 음성은 진리를 울리며 특히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대하여 증거할 때 높이 울리게 된다.

비관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하여 그는 희망에 차고 고무적인 교리를 전파한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성장하고 성취할

훌륭한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역경에 직면할 때에도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언덕을 내려갈 때보다 결코 열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강한 간증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구세주에 대한 강한 간증을 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회생시키기에 족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위안을 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킨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훌륭한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의 생활을 축복해 주기 위하여 역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을 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축복입니다.”

젊은 톰 페리가 아이다호주 루이스턴에서 감독단으로 부름받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 리 장로가 그를 대체사로 성임했다. 그 축복을 하면서 리 장로는 예언적인 통찰력을 갖고 이 젊은이가 언젠가는 교회를 인도하는 평의회에 앉게 되리라고 말했다. 새로 성임받은 이 대체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 경험을 마음속으로 간직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엘 톰 페리 장로는 리 대관장이 별세했을 때 생긴 공석을 메우도록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았다. 초창기부터 거룩하신 손이 페리 장로의 생활에 나타나셔서 그가 지금 주님의 종으로서 성취하고 있는 사업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인격을 형성시켜 주었던 것이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공식적인 교회 정책 성명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심있는 복음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스티브 에프 길랜드, 캘리포니아주 롬비치 감독이며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

다 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만일 그릇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거나 화나게 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로서 또 감독으로서 저는 여러 번 대학 강의실이나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초청받아 왔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는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와 이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성 신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널리 손길을 뻗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항상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하여 염려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누군가가 적의를 품고 있다면? 다행히 경전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성구를 연구하면서(특히 엘마서 30장) 몇 가지 소중한 원리를 발견했으며 그 원리는 비우호적이거나 적의에 가득 찬 문의자를 대할 때 수없이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1. 잘 듣고 분명히 함. 공격받고 있을 때는 그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에 말려 들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는데도 그가 말하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십시오. 그 질문을 분명히 밝혀주는 질문을 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대로 그 질문을 반복한 다음 “질문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라고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필요하다면 그가 그 질문을 분명히 규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오른편 뺨을 친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도 똑같은 행위로 반격할 것을 예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왼뺨을 들이대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가 무장을 풀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말을 잘 들어 주었다면 그도 우리가 할 말을 보다 더 잘 들어 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12 참조)

2. 오해에 대한 정정을 제안함. 우리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특히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시킨다고 느낄



때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고 그를 당황하게 하거나 조롱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공격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하면서 엘마가 코리호어에게 말한 것처럼(엘마서 30:32~33 참조)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교회 공식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책에서 어떤 말을 인용하여 공격하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에게 말일성도는 언제나 마음대로 추측할 수 있지만 어떤 개인이 추측한 이론이 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개인적인 추측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시고 싶습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고의성은 없지만 그런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부드럽게 대답함으로써 그 사람이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언 15:1) 대관장단에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반감이나 악의를 품지 말고 대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1983년 12월 1일자 편지)

3. 복음의 기본 사항에 초점을 맞추. 사람을 깊은 물에 집어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영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물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적절한 기초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더 깊이가 있는 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기 전에 우유부터 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교성 19:22; 고린도전서 3:2 참조)

교회를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교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진리에 집중하며 외부 사람들이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써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교리를 왜곡시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토론 주제를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복음의 기본 원리로 되돌아켜 인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마가 이 원리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당시의 상황을 잘 다스려서 코리호어와의 토론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엘마서 30:37)

또 다른 기본적인 복음 가르침은 현대의 계시와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의 모든 질문이 그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_____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현대의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아모스 3:7; 에베소서 2:20 참조) 저는 오늘날 주님이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며 선생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될 수 있는지 아시고 싶습니까?” 또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단 한 가지 대답을 드리기에라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이런 문제 _____가 있습니다.”

4. 간증함.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엘마는 코리호어에게 단순하고 직설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리스도는 강림하시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니”(엘마서 30:39) 만일 그

영

에 대하여 수용적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수용적이라면 성신이 그에게 간증해 줄 수 있습니다. 영의 간증이 그의 개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에 대하여 수용적이지 아니라면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진실로 교회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듣고 오해를 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람이 복음의 물리적인 증거 내지는 논리적인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복음을 입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애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진실한 증거는 영의 간증입니다.

5. 자신이 논쟁이나 말다툼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사람의 견해를 듣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엘마는 복음을 입증하려고 애쓰게 되는 함정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는 코리호어에게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리라는 무슨 증거라도 있느냐?…너는 아무 증거도 갖지 못했고 오직 말 뿐이나.”(엘마서 30:40) 만일 상대방이 논쟁을

원한다면 그럴 때 합당한 질문은 “그냥 논쟁을 원하십니까 혹은 제가 어떤 것을 믿는지 알고 싶으십니까?”라는 것입니다.

6. 그 사람이 행동하도록 권고함. 코리호어가 집요하게 증거를 요구하자 엘마는 그 증거의 부담을 원래 그 짐을 져야 할 곳 즉 코리호어의 어깨로 돌려 넘겼습니다. 그가 정말로 알기를 원했다면 그에게는 “이 모든 형제들의 간증과 기록하신 선지자들의 간증”이 있었으며 “경전이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엘마서 30:44) 우리가 세상사람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알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진리를 알지니”(요한복음 7:17; 8:31~32) 만일 사람이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즉 계명에 순종하고 경전을 연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메시지의 참됨을 확실히 줄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질문받은 것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도 다시 엘마가 적절한 행동 방향을 잘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기록의 신비를 완전히 알고 있지 아니하며, 나는 이에 관하여 말하기를 삼가하노라.”(엘마서 37:11) “모릅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정직함을

존경할 것입니다. 저는 어딘가에 해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해답이 무엇인지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말로 그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을 도와 주려고 노력하면서 가끔 서투른 일을 하지만 성신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널리 손길을 뻗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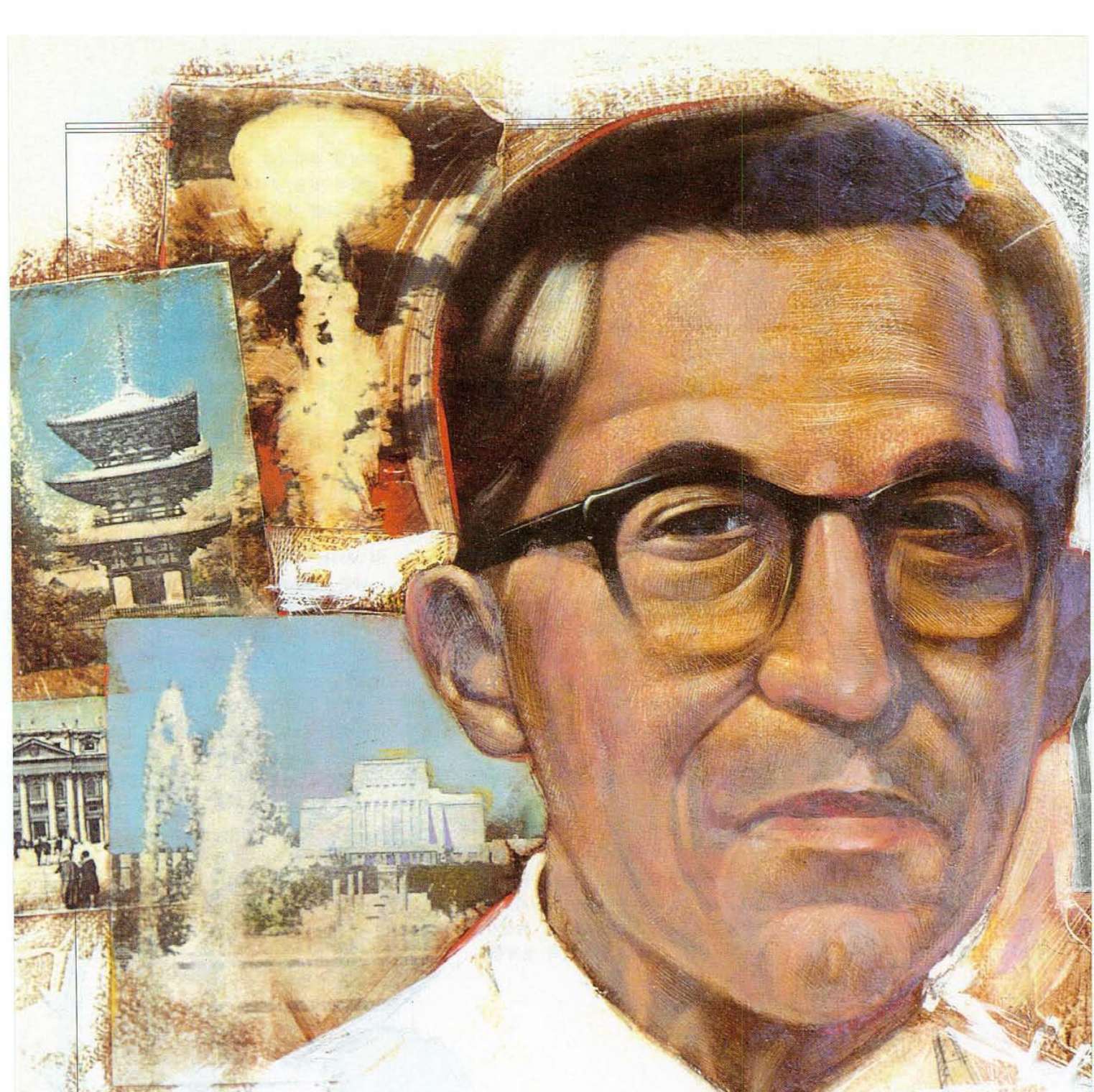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을 “필요한 그 시각에…주시리라”(교서 84:85)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한 대관장단 메시지를 읽으며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됨으로서 받는 축복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확인받을 때 받는 성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은사는 지도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대로 충실하게 생활하는 회원들에게도 함께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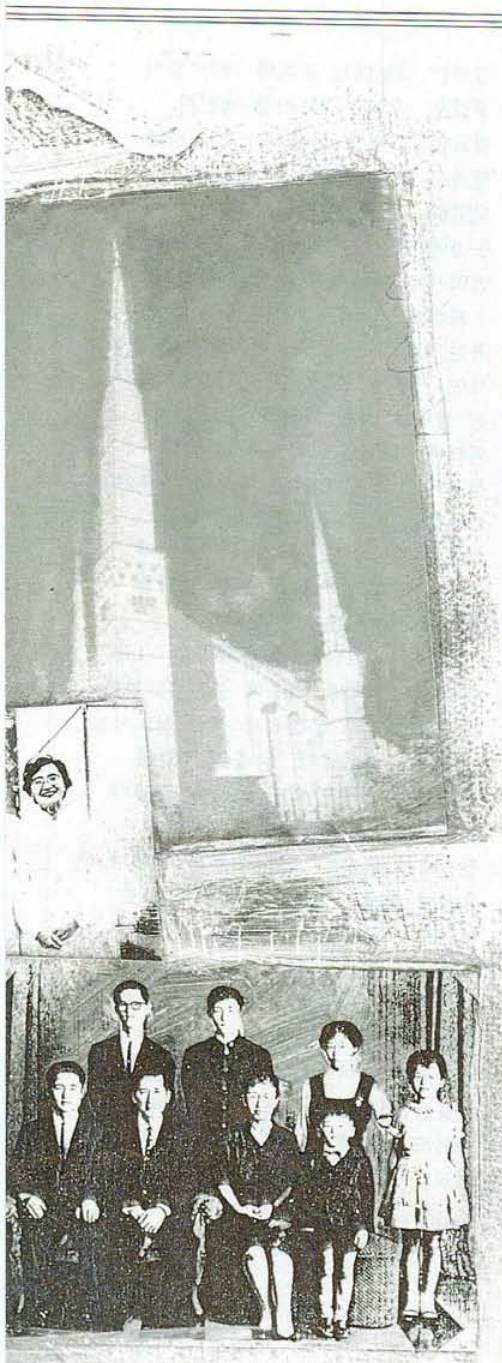
“여러분께서 기도으로써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신다면 영감이 여러분에게 오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1983년 12월 1일자 서한)□





마사오 와타베 :
종신 선교사로
봉사함

조셉 정



상단: 대만 성전. 중앙: 와타베 형제가 아내인 히사코 자매와 대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다. 하단: 자녀들과 함께 한 와타베 부부.

이태리 로마 성베드로 성당의 가장 높은 지붕 꼭대기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관광객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즉 마른 체격의 일본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간에 멈춰 서서 쉬었다. 이 일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힘차게 멈추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같이 가던 일행 중 몇 사람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좋은지 물었다. 마사오 와타베는 웃음을 머금고 “나는 물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어떤 미국인이 호기심에 차서 천주교 대성당과 말일성도 성전이 어떻게 비교되느냐고 질문을 했다. 와타베 형제는 마치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주머니로부터 카드를 몇 장 꺼내서 일행에게 나누어 주었다. 앞 면에는 와타베 형제가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하와이 성전의 사진이 있었다. 와타베 형제는 또 뒷면에 신앙 개조가 적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사실상 와타베 형제는 자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다. 현재 대만의 타이페이 성전장단 제이보좌인 와타베 형제는 기차와 버스에 탄 사람, 군인 장교 및 고용주 등에게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다.

아마도 그가 선교 사업에 대하여 그렇게 열성을 갖는 것은 복음이 그 자신의 생활을 너무나 깊이 변화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마사오 와타베는 중국의 안동성에서 일본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일본신교의 한 교파에 속해 있었다. 그는 어학에 관심이 있는 지적인 청년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결혼했으며 일본 외무부는 그를 북경으로 보내서 중국 만다린어를 배우게 했다. 그는 북경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동경에 있는 일본 외무부에서 근무했다.

절망의 기간

마사오 와타베는 이상을 품고 있는 젊은이로서 전 세계의 국가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평생 동안 꿈꾸어 왔다. 그런데 이차 대전이 벌어져 죽음과 황폐와 패배를 몰고 왔다. 전쟁이 끝나기 일 년 전에 젊은 마사오는 일본 군대에 영장을 받고 입대했다. 전쟁에서 겪은 일로 인하여 그는 절망의 시기로 빠져 들었다. 그는 “인생이 마치 아무런 희망이나 목적도 없이 암흑 속을 방황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회상한다.

전쟁이 끝난 후 마사오는 일본의 센다이 시로 전근했다. 그곳에서 그는 천주교 신부를 만나 기독교를 소개받았다. 와타베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마음 속으로 훌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내 마음이 점차적으로 밝아졌으며 마치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향하여 속삭여 주시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사오는 천주교회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일 년 동안 다니던 지방 대학에서 성경 클래스를 찾아 냈다. 감리교 목사의 부인인 선생이 그를 교회로 데려갔다. 그 선생과 남편은 그에게 감리 교회 회원이 되도록 권고했다. 그는 감리교 신앙에 대하여 해답을 받지 못한 의문이 있었으므로 주저했다.

그가 여전히 감리교도가 될 것을 고려하고 있을 때 그의 학생 한 사람이 두 미국인 선교사가 자기 집에 하숙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했다. 마사오는 그들을 만나고 싶었으며 그 다음 날 그 학생이 그들을 학교로 데려왔다. 와타베 형제는 “그들과 악수하고 있는 동안 매우 훌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과 함께 주일학교에 참석했을 때 그 의식의 간결성과 사람들의 진실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다시 불켜진 희망

선교사 소책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 너무나 그의 마음을 끌었기 때문에 밤새 그것을 읽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상실한 희망에 다시 불을 밝혀 준 것은 바로 물몬경이었다.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에 관하여 니파이일서 10장에 있는 예언을 처음 읽었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평생 동안 세상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될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그는 돌아가신 자기 조상도 침례와 기타 모든 구원 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기뻐했다.

와타베 형제는 히로세 강에서 침례받은 1949년 11월의 그 추운 날 이후로 언제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그 기쁨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 왔다. 그는 다음해 7월에 아내인 히사코 와타베 자매를 침례할 수 있었다. 그의 장남인 아후 살 된 마사히사도 같은 날 침례받았다. 그 밑의 두 아들 마사지와 마사카주 및 두 딸 세이코와 야수코는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침례받았다.

매일매일의 선교 사업

와타베 형제는 교회 회원은 누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 매일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다. 우선 출근길에 기차 안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책자를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의 세째 아들이

마사카주는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일본의 기차 안에서 십 오년 전에 마사오 와타베로부터 처음 복음에 관하여 들은 사람을 침례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와타베 형제는 샌다이시에서는 일본인으로서 맨 처음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언제나 충실한 종이였다. 그는 샌다이 지부의 초대 지부장이 되었다. 아시아 최초의 스테이크가 일본에 세워졌을 때 그는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했다. 그는 가장 좋은 권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축복을 줄 준비를 갖추었다. 그가 즐겨 인용하는 성구 가운데 마태복음의 구절이 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 : 38~39)

와타베 형제는 교회에 가입한 직후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 때문에 샌다이에 있는 일본 외무부의 직장을 잃었다. 와타베 형제는 새로 개종한 다음 사무실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 파티에서는 술을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이 마실 술을 부어 주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의 상관은 그에게 이 파티에 참석해야 하며 선교사와 함께 가두 전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여러 번 경고했다. 그러나 와타베 형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상관이 그를 불러 “이곳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가는 것이 좋겠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없오.”라고 말했다. 곧 와타베 형제는 미군 부대의 직장을 얻게 되었다. 오 년 동안 그곳에서 일한 후 동경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교회 번역사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와타베 가족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충실한 가족이 함께 사는 기쁨을 포함하여 기쁨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되었다. 1968년에 와타베 가족이 모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와타베 부부의 자녀들은 모두 결혼했으며 현재 그들에게는 스무 명의 손자가 있다. 와타베 부부의 아들은 모두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로 봉사했다.

1979년에 와타베 형제 부부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그것은 하와이 성전에서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와타베 형제는 인봉자로 일할 권능을 받았다. 와타베 부부는 대만의 타이페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와타베 형제는 성전장단 제이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와타베 형제는 벌써부터 자신이 성전장단으로부터 해임된 후 복음을 전할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간증을 그의 동포들에게 전할 책을 쓰고 싶어한다. 마사오 와타베 형제에게는 매일 매일의 선교 사업이 인생이다. □

어떤 아버지의 음성

로버트 더블류 파리스

인생의 경쟁적인 많은 음성 중에 어느 음성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딸 잭크와 함께 초등학교의 아버지와 딸이 함께 참석하는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소녀는 모두 식사할 도시락을 가지고 참석했다. 디저트로는 아버지와 딸이 모두 케익을 장식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잭크와 나는 우리 케익에 크림으로 커다란 이를 만들어 올려 놓았다. 물론 식사한 후에는 게임도 하고 시합도 했다.

그날 밤 우리 게임 중에는 릴레이 시합도 있었다. 초등학교 지도자가 활동실 바닥에 플라스틱 볼링 핀을 일정한 형태로 배치했다. 아버지는 모두 자기 딸의 눈을 가리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활동실을 가로질러 핀 사이로 딸을 인도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 팀이 출발하게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딸을 손으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목소리만 이용해서 길을 알려 주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굉장히 단순한 게임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오른쪽으로”, “멈춰”, “똑바로 가”라고 고함질렀다. 그런 양 팀이 모두 큰소리로 응원하고 있는 속에서 눈을 가린 소녀는 자기 아버지 목소리와 상대편 팀 부친의 목소리를 혼동하기 쉬웠다. 경쟁하는 두 소녀가 그 지시를 혼동할 때가 흔히 있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지시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일부 딸들은 그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빨리 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핀을 넘어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를 모두 놀라게 한 아버지와 딸이 있었다. 이 아버지는 증병을 앓아서 육체의 기능에 장애가 있었다.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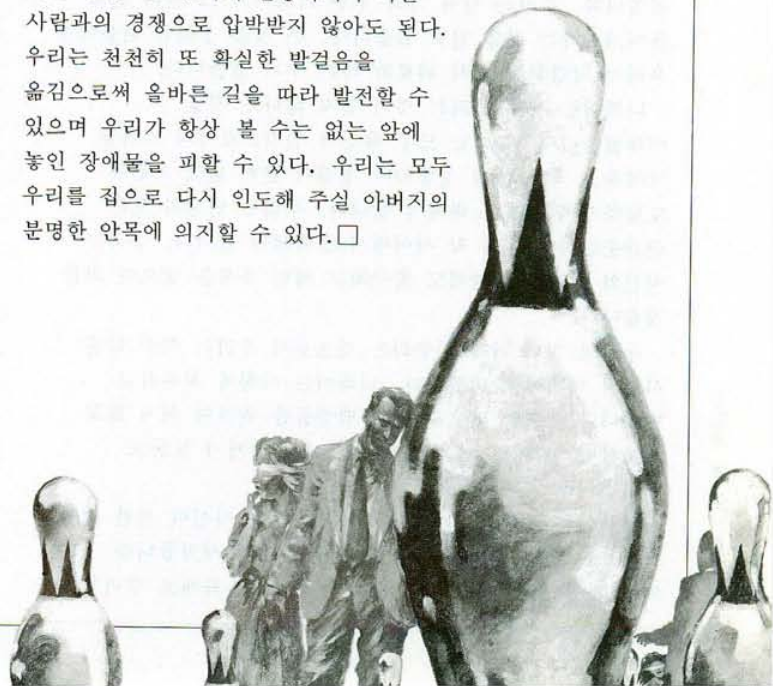
몸 움직임과 말이 느렸다. 그들 순서가 되어 눈을 가리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왼쪽, 오른쪽, 빨리 가거나 늦게 가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착실하게 내 음성을 들으면서 천천히 따라 오너라. 계속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저 내 음성만 따라 오너라.”

신호가 나고 그들이 출발했을 때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내 음성만 따라와.” 또는 “다른 사람 음성은 듣지 말고 내 음성만 들어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그 장애물 사이로 짧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빨랐으며 너무나 빨리 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 팀이 이겼다.

모든 아버지와 딸에게 얼마나 재미있는 교훈을 주었는지 모른다. 세상에는 우리를 부르고 혼동시키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음성이 들릴 때가 너무 많다.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가라,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흔히 있다. 또 자녀가 그런 지시를 따르기 어려울 때가 흔히 있다.

모든 젊은 남녀에게 이 생에서 합당한 아버지가 있어서 말과 행동으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까봐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음성과 모범만 따라 오너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집으로 인도하게 하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또 그런 아버지가 있는 아들딸이 모두 아버지가 그의 신권을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를 신임하고 기꺼이 그의 지시와 모범을 따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물론 우리 모두 이 생에서 경쟁하는 음성으로부터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만일 우리가 이 “작고 고요한 음성”에 귀기울린다면 이 세상의 많은 음성으로 인하여 혼동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경쟁으로 압박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천천히 또 확실한 발걸음을 옮김으로써 올바른 길을 따라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항상 볼 수는 없는 앞에 놓인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집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아버지의 분명한 안목에 의지할 수 있다. □



죄 절 을

엘리자베스 케이 라이저

니 파이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경전 구절에서(니파이서서 4:15~35) 이 예언자는 그의 훌륭한 마음속의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사탄이 지배하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니파이가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우리가 모두 대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보라 나의 심령은 주님의 일로 즐거워 하며, 나의 마음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게 음미하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공홀히 여기사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부르짖기를, 오 나는 불쌍한 인간이로다. 나의 육신이 나를 슬프게 하며, 나의 죄가 나를 비탄케 하는도다.”(16~17절)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나는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데도 전적으로 행복하지는 않다.”

니파이는 자신의 비참함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이 흐느껴 울며 영혼이 슬픔의 계곡에서 헤매이며 그의 육신이 쇠진하며, 적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의 실재성에 대한 증인이었던 그 니파이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자신의 실패를 그렇게 견디기 어려워 했던 것은 그의 간증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그의 부친 리하이가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을 상실한 다음에는 우리가 낙담하여 흔히 괴로와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니파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극복하고 악을 행할 성품이나 경향이 전혀 없는 차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운 소망에도 불구하고 매일 유혹을 받으며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짐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낮으로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밤이면 저들로 인하여 나의 배개가 눈물로 적셔짐이라.”(니이 33:3)

니파이는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한 다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또한 어찌하여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야 하느냐? 어찌하여 유혹에 굴하여 악마가 마음으로 들어와 나의 평화를 깨치며, 나의 심령을 아프게 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나의 원수로 하여 노하느냐?”(니이 4:27)

우리도 낙심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니파이처럼 슬퍼하는 것을 택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깨어라, 나의 영혼이여!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라.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 영육의 원수에게 다시는 굴하지 말지어다.”(28절) 니파이는 자기 생각을 슬픈 것으로부터 기쁜 것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심지어는 절망할 때에 니파이로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니파이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소망을 적었음.** 니파이는 충실하게 일지를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비록 그 두번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기록으로는…힘찬” 사람이 아니었으나 기록했습니다. (니이 33:1) 그러나 그로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며 주님은 그의 기록에 대하여 현명한 목적을 갖고 세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기록을 끝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기록할 바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며, 특히 나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이라 여기는도다.”(니이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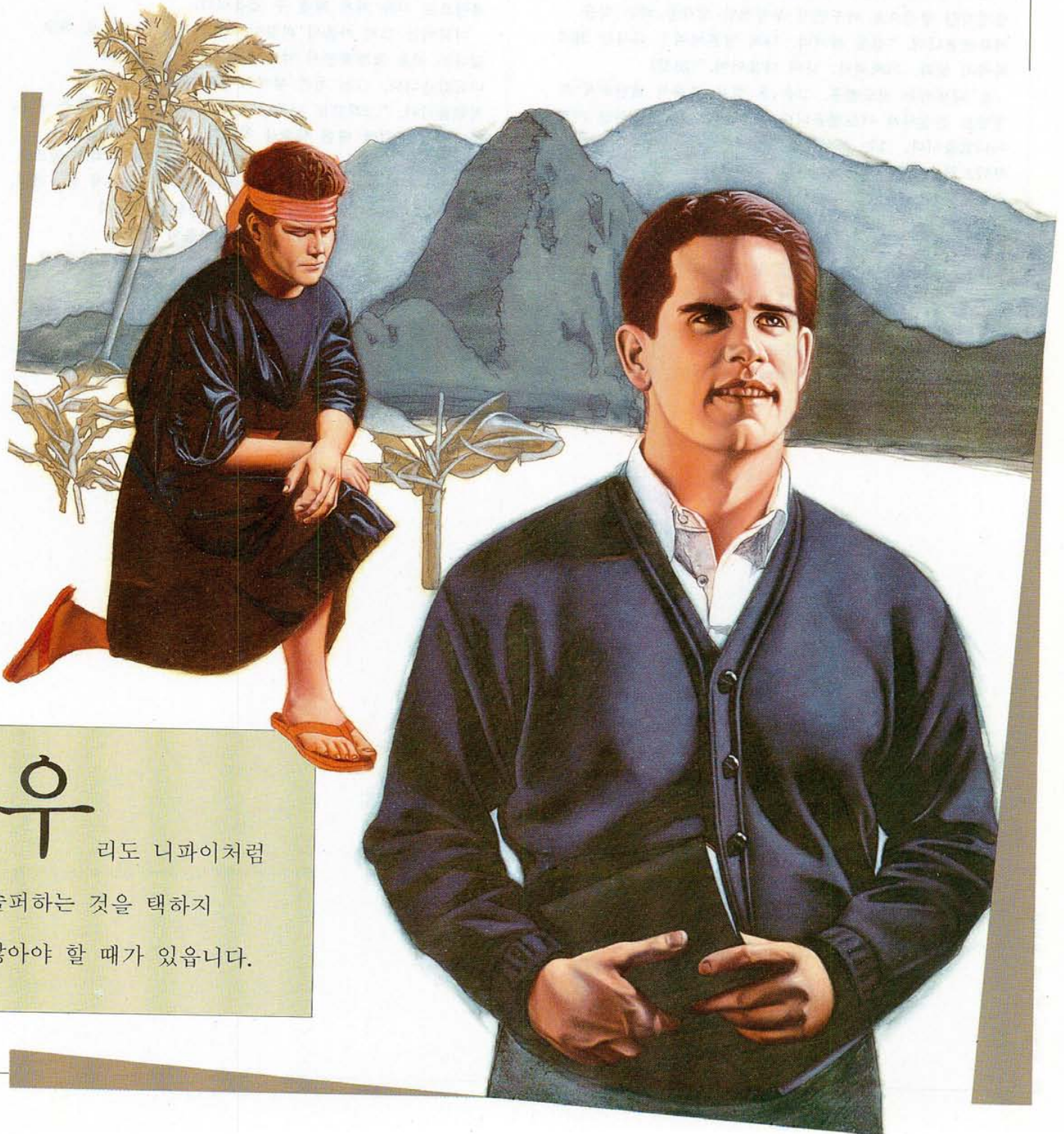
적는 것이 치료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 사업가로서 일하면서 낙담과 두려움과 걱정애 싸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느낌을 일지에 모두 다 적도록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적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합니다.

2. **니파이는 사색했음.** (니이 4:16 참조) 사색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사색은 여러 가지 사물을 마음속으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명상하는 과정입니다. 니파이처럼 주님께 속한 것에 대하여 명상하면 우리 마음의 문이 영을 향하여 열리게 됩니다.

3. **니파이는 경전을 연구했음.** 니파이는 경전을 보고 기뻐했으며 그것이 진리임을 간증했습니다. (15절 참조) 그는 특히 이사야의 기록을 보고 기뻐했으며 “이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저들의 마음에 힘을 얻고 기뻐하게 하려”(니이 11:8) 그의 말씀을 포함시켰습니다. 니파이의 경전 지식은 그가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비통에 잠길 때까지도 그가 믿었던 분에 대하여 알게 해주었습니다. (니이 4:19 참조)

가 르 치 는 것

극복함



우

리도 니파이처럼

슬퍼하는 것을 택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비의 품매장 100%

4. 니파이는 주님의 선하심과 지지와 사랑과 보호를 상기했음. (20~25절 참조)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고 적을 무찔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식을 보내 주신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우리의 축복과 영적인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낙심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니파이는 자신을 격려했음.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잠을 깨어라, 나의 영혼이여!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라.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28절)

6. 니파이는 기도했음.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대담하게 또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구속받고 자신이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받고 자신이 죄의 모습을 떨어버리고 지옥문이 그의 앞에서 닫히지며 의의 문이 열리며 주님께서 당신의 의의 옷으로 그를 감싸 주시며 그가 자기 원수를 피하며 자신이 가는 길이 곧고 원수에 의하여 막히지 않도록 간구했습니다. (31~33절 참조) 이것은 모두 우리가 사색하고 주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7. 니파이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음. “오 주여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진정 나의 영육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당신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30절) 그는 감사와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믿겠습니다.”

8. 니파이는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음. 그는 자신이 구세주의 대속의 피에 의해서만 구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기쁨과 양심의 화평으로 가득 차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그의 마음의 희망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낙담으로부터 큰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이 31:20)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둘 때 우리도 낙담을 극복할 열쇠를 찾게 될 것입니다. □

사회 사업가이며 결혼 및 가족 문제 상담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케이 라이저는 현재 남아연방 요하네스버그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오스트레리아에서

성숙한 연령에 도달한 날을 하루 끄집어 낸다면 1984년 9월 20일이었을 것이다.

널리 펼쳐진 시드니시의 이른 봄 날씨는 오스트레리아의 첫 성전 헌납에 꼭 알맞았다. 이 날은 144년 전에 오스트레리아 땅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교회가 이런 비약적인 발전과 도약을 평가하고 현위치를 살펴보는 날이었다.

교회가 1840년대에 오스트레리아에서 지극히 작게 시작한 때로부터 이 교회는 열여섯 스테이크와 다섯 선교부에서 65,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널리 존경받는 조직이 되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시드니는 이제 교회의 태평양 지역 회장단 및 기타 태평양 지역의 모든 교회 조직의 본부가 되어 이십 오만 명의 회원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전을 갖게 된 것이 오스트레리아에서 교회의 성숙도가 새로운 차원에 올라섰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면 그 다음해에 행해진 계보 사업과 성전 사업 활동이 그런 사실을 입증해 준 셈이다. 1985년에 오스트레리아 회원이 그들 자신의 성전에서 41,341명의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의식을 행하고 성전 의식을 집행하도록 53,889명의 명단을 제출하여 성전 사업을 행하도록 이름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자체 지역에서 제출한 명단으로 충분한, 교회 내에서 몇 개 안되는 성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대부분의 오스트레리아인은 아직도 성전에 가려면 먼 길을 여행해야 한다. 서해안의 퍼스나 북쪽 끝의 다아윈에 사는 회원은 성전까지 가려면

성

전을 갖게 된 것이 오스트레리아에서 교회의 성숙도가 새로운 차원에 올라섰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면 그 다음 해에 행해진 계보 사업과 성전 사업 활동이 그런 사실을 입증해 준 셈이다.



오늘날의 오스트레리아

그리고 이제 추수

마이클 오터슨

약 4,800킬로미터의 거리를 여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오스트레리아의 성전 추천서 소유자는 작년에 일인당 평균 일곱 번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시드니에선 예상대로 평균 숫자가 훨씬 더 높아서 매월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외부에서 방문 온 회원을 위해서 두 번 모임을 갖는다. 남서쪽으로 8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멜버른과 북동쪽으로 그보다 좀더 먼 브리스베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버스가 온다.

밀턴 제이 헤스 시드니 성전장은 이렇게 말한다. “버스가 밤새 달려와서 토요일 아침 일찍 이곳에 도착하면 방문자들은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갖추는 시간이 잠시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두 차례 모임에 참석 후 이른 오후에 다시 버스를 타고 집까지 먼 길을 여행하게 됩니다.

1,600킬로미터나 떨어진 아델레이드로부터 젊은이들이 대리 침례 의식을 하기 위하여 세 번 왔다. 그들은 지방 전화 회사의 전화 번호부를 가정과 사업체로 배달해 주고 그 여행 비용을 번 것이다.

헤스 성전장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이 오스트레리아에 있는 성도의 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 이외에도 일천 명의 오스트레리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런 종류의 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드니 지역 대표를 했으며 성전 헌납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아이안 맥키는 현재 지역 계보 책임자이다. 그는 현재 이만 오천 명의 이름이 성전 사업을 행하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앞으로 적어도 2~3년 동안은 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회원과 가까운 곳에 조사 시설을 갖춘 여섯 개의 계보 도서관 지부 네트워크가 그런 성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약 이만 오천 통의 계보 마이클로 필름이 현재 배포되고 있다.

수많은 오스트레리아 사람들이 1988년에 건국 이백



주년을 경축하는 나라에서 자신이 물려받은 이민으로서 또 개척자로서의 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맥키 형제는 “오스트렐리아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원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계보 및 성전 사업은 오늘날 오스트렐리아에서 교회의 성장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자료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지난 십 이 년 동안 교회 교육 기구가 발전한 것도 또 다른 신빙성 있는 측정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도 역시 이 섬대륙을 횡단할 때의 먼 거리와 관련이 있다. 아델레이드에서 교회 교육 기구 지역 책임자인 리오넬 월터즈는 다아윈에서 그가 담당하는 지역의 맨 북쪽 지역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로 거의 네 시간이나 가야 한다. 만일 차로 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하기 힘든 곳 중의 하나에 속하는 지역을 통하여 편도만 해도 거의 일주일이 걸릴 것이다.

월터즈 형제의 상관이며 신학 연구원 지역 책임자인 크리스 골란은 거리로 인한 문제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예전에 아델레이드에서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었던 팔 년 동안에 그 지역에서 스티어링 지부가 가장 등록률이 높았으며 어떤 단위 조직보다 더 높은 이수율을 보였던 것을 회상하고 있다. “강의 담당자가 매일 오십 오 킬로미터 떨어진 아델레이드로부터 여행했습니다. 그 강의 담당자와 지부장 모두 세미나리에 완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수업에 오지 않으면 강의 담당자가 그 학생의 집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올바른 태도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 강의 담당자가 주중의 어떤 날에 교실에 들어가더라도 훈육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인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스트렐리아 전역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미나리 클래스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을 때는 학생의 70퍼센트가 가정 학습 코스를 이수하고 있었다. 현재는 1,000명의 오스트렐리아 세미나리 학생의 80퍼센트가 매일 새벽 클래스에 참석하고 있다. 오스트렐리아에서 현재 활동적인 말일성도 청소년의 70 내지 80퍼센트가 등록되어 있다.

세미나리 활동은 늘어나고 있는 오스트렐리아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공헌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으나 오스트렐리아 출신 선교사가 뉴질랜드, 필리핀, 영국, 미국에서 봉사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상당수의 오스트렐리아인 선교사가 유타주에서 봉사했다.

시드니 근교 북서쪽 칼링포드에 있는 오스트렐리아 성전은 1984년 9월 20일에 헌납되었다. 여러 버스들이 주민들을 성전으로 실어다 준다.

교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써 매월 120 내지 200가지 기사가 신문이나 방송으로 나가고 그중 95퍼센트가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작년에는 언론에서 기록적으로 많이 다루어서 연중 평일에는 매일 평균 신문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분량의 기사가 실렸다. 미스 아메리카이며 말일성도인 샬린 웰즈 자매, 우주인인 돈 린드, 스펀스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죽고 나서 새로 구성된 대관장단 등의 방문과 새로운 예배당의 완공 등과 같은 행사를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교회 선교사과의 지도를 받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 분 메시지를 방송하는 그 메시지에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말일성도의 견해가 담겨 있다. 1986년 초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 관한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써 수천 명이 비회원인 보낸 편지가 교회 본부에 도착했다. 그중에는 가슴 아픈 편지가 많았다. 부모와 더 나은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한 십대 청소년도 있었고 중요한 사회 문제를 교회가 다루어 준 것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찬사를 보낸 부모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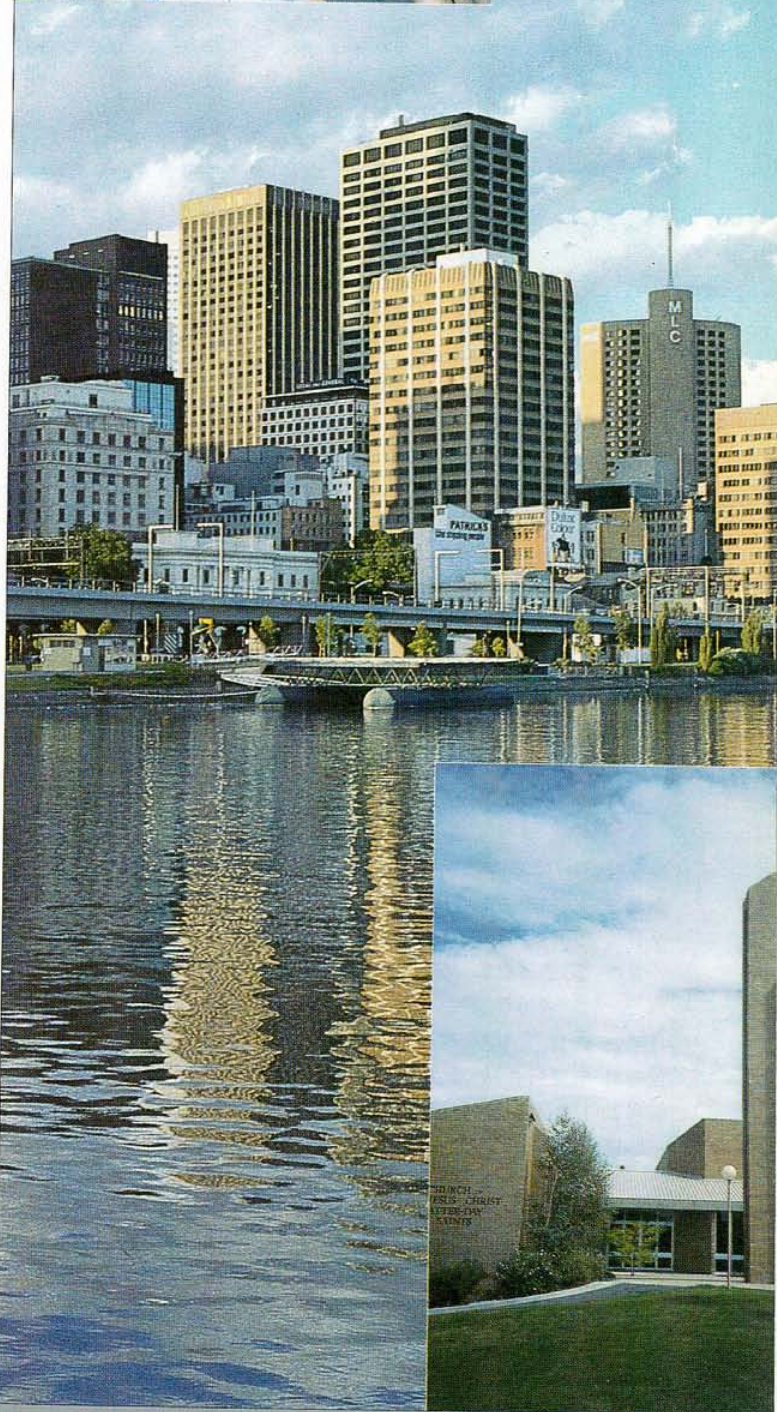
시드니 및 브리스베인 지역의 지역 대표인 게리 피 밋첼은 여러 해 동안 오스트렐리아에서 공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되었습니다. 오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언론으로부터 혼란 겪었던 적의와 적개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현재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현재 교회는 오스트렐리아에 교회 회원이 칠만 명 조금 더 되며 1950년대에 삼천 명도 안되던 숫자로부터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시드니에 있는 태평양 지역 본부의 컴퓨터 기술로 인하여 신권 지도자들이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한 회원 기록 방식은 다른 국제 지역을 위한 실험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오스트렐리아에서 개발되었다.

이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은 오스트렐리아에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태평양 지역 회장인 존 소넨버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어떤 지역에서나 그 나름의 문제가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행하는 사업에는 매우 고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곳 지역 회장단은 모두 스테이크를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뿐 아니라 평회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지지와 협력이 있으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단: 퍼스 제3와드에 있는 상호부조회 가사반에서 요리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다. 중앙: 예러 강 너머로 본 멜버른 하단: 멜버른 오스트렐리아 무라빈 스테이크 센터

봄 코완

그의 생애가
바뀐 순간



봄

코완은 열 아홉 살에 집을 떠나 삼 년 동안 그의 소형 노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오스트렐리아 전역을 돌아다녔다.

수많은 젊은 오스트렐리아인처럼 그도 조국이라고 부르는 이 광활한 대륙을 좀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 이후로 삼 년 동안 전국을 두 차례 여행하며 스물 여섯 가지 직장을 거쳤다. 그러나 그 여행은 그가 생각하지도 않은 다른 축복도 가져다 주어서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의 방랑 생활은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었다.” 봄은 지금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것을 모두 다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여행하며 오스트렐리아를 보며 다른 사람이나 지역 사회와 나 자신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서는 일체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여행 방식은 차를 몰고 가다가 관심을 끄는 장소가 생기면 멈추고 일자리를 얻어서 한 동안 일한 다음 다시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여행하는 동안 그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는 어떤 병원에서 시체 해부 조수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이란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해 온 젊은이에게 그것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험이었다.

얼마 후 퀸즈랜드 북쪽의 타운즈빌을 지나가면서 1972년에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든 태풍이 지나간 참상을 보았다. “그 파괴는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 가만히 앉아서 인생에는 뭔가 다른 목적 - 어떤 목적이 더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나는 늘 보고 싶어했던 것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한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자동차 안에 앉아서 마음 속으로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당신 좋으신 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음 속으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날 봄 코완은 카이언즈 교외의 천국같이 아름다운

해변에 자기 차를 세웠으며 곧 자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기술자가 도와 주러 올 것을 기다리면서 깨끗하고 습기찬 모래로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곧 어떤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재능을 칭찬하고는 곧 대화를 복음과 관련된 토론으로 이끌고 갔다.

“그 여성은 그 지방에 있는 자기 교회 지부가 다음 날 배를 타고 유람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는 내가 함께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 여성에 대하여 또 그녀가 말하는 교회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몰랐으나 내 차를 끌고 가는 트럭의 뒤에 앉아 있는 동안 이 초대가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강한 영적인 증거를 받았습니다.”라고 봄은 말한다.

그다음 날 부두에서 어제 그에게 말을 건 자매로부터 미리 이야기를 들은 것이 틀림없을 선교사들이 손을 흔들어 그의 수리한 스포츠카를 세웠다. 봄은 그 배에 있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는 “그 배에 있는 동안 내가 나의 집에 있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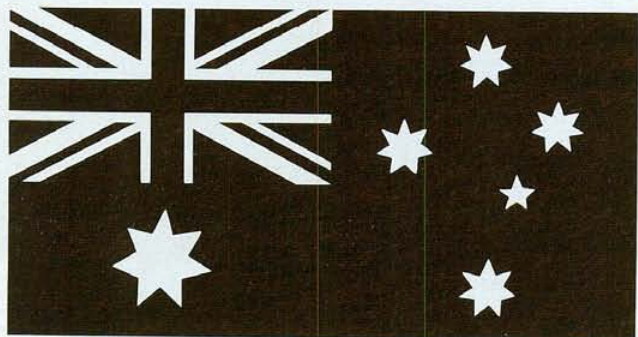
그 선교사들은 함께 유람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날 봄에게 물몬경을 한 권 주며 읽으라고 했다.

봄은 오스트렐리아 북쪽의 벽지인 와이파 마을로 여행할 계획이었으므로 물몬경을 갖고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대부분 그가 머물렀던 작은 이 인용 알루미늄 집에서 읽었다. 봄은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이 침례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 카이언즈로 날아 가서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다. 그 장로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에게 여섯 가지 토론을 다 가르쳤으며 그는 그 다음날 침례받고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했다.

봄은 멀리 떨어진 와이파 마을로 즉시 돌아온 후 이 년 동안을 교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교회 회원이 된 것이 몹시 기뻐으나 교회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이나 값진 진주 혹은 교회 역사에 대하여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1974년 교회 회원이 된 지 이 년이 지난 스물 네 살이 된 봄을 그의 회사가 브리스베인으로 보냈다. 그는 그 지역 전화 번호부에서 교회 주소를 즉시 찾아내고는



정규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급속하게 복음 지식을 얻었으며 일 년이 조금 지났을 때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퍼스로 선교사로 출발했다.

그는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오스트레리아 브리스베인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으며 일 년 후에는 오스트레리아 브리스베인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로 부름받았다. 그는 그 직책에서 칠 년 이상 봉사하고 있다.

코완 부장은 그의 청년기를 경이의 자세로 회고한다.

“맨 처음 그 교회의 사교 활동으로 초대한 자매를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으나 바로 그 때가 내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마가렛 로슨

쿠누누라의 외로운 성도



티 모아 바다 속을 걸어가지 않고는 오스트레리아에서 쿠누누라 마을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곳은 삼천 명의 주민이 사는 벽지의 농업 및 광업 마을이다. 이 삼천 명 가운데 말일성도는 단 한 사람 뿐이다.

마가렛 로슨을 제외하고는 700킬로미터 이내에는 교회 회원이 한 사람도 없다. 지난 십 사년 간 완전한 “활동”회원으로 지낼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다른 외딴 곳에 사는 교회 회원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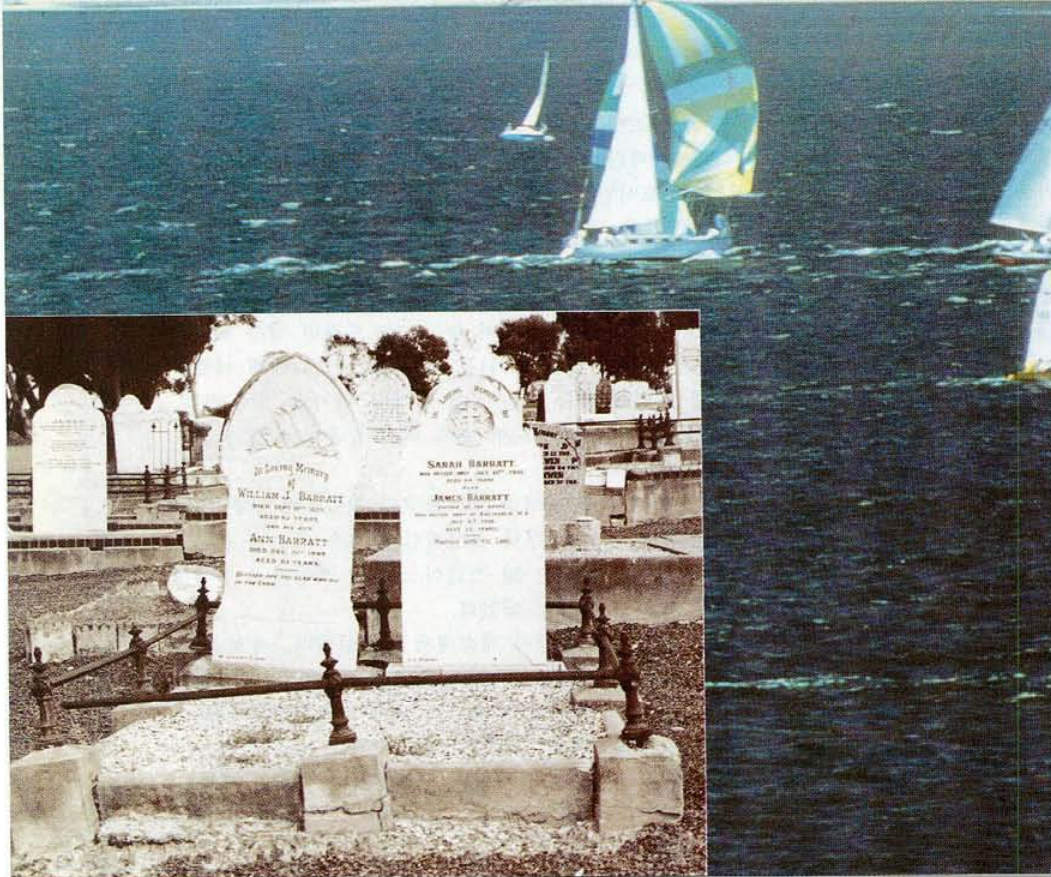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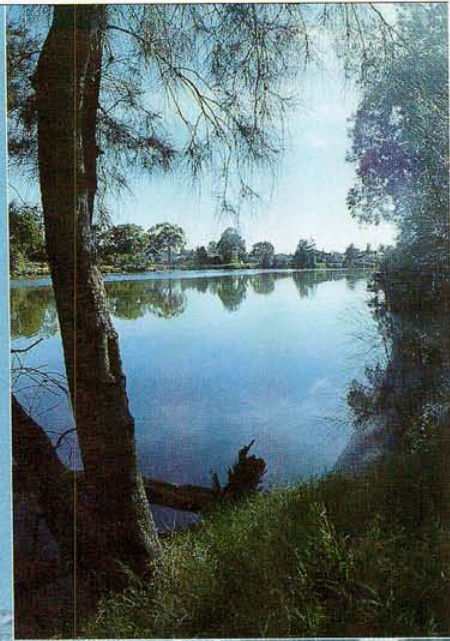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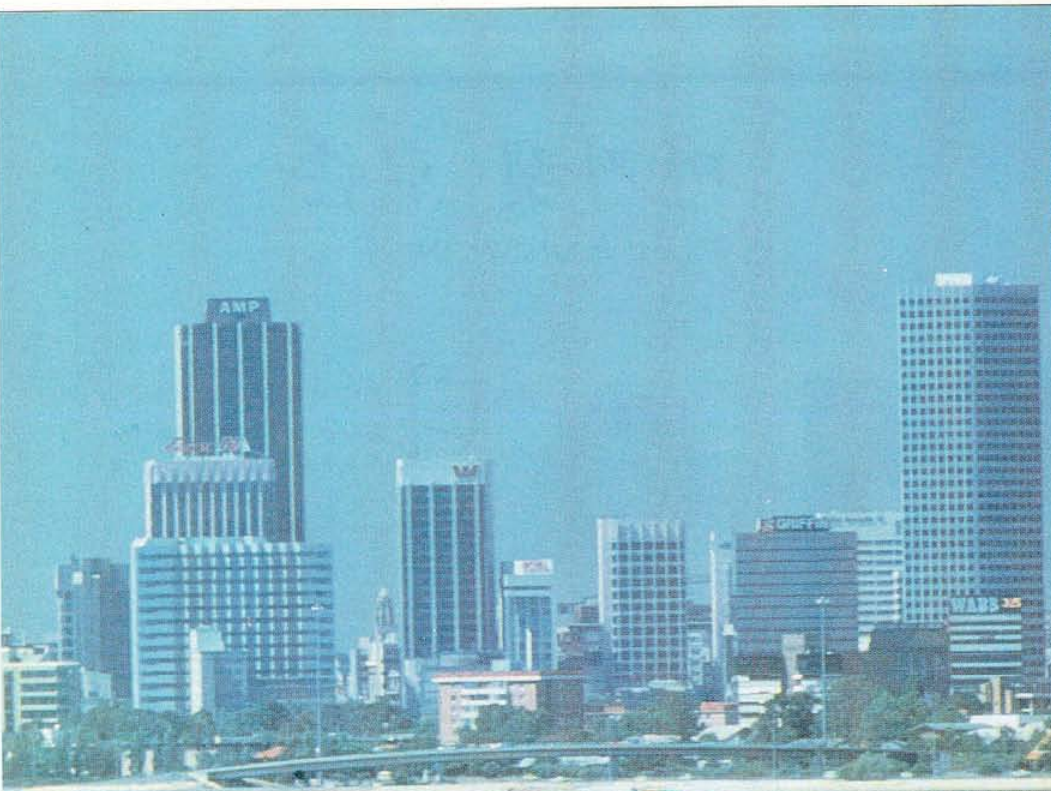
로슨 자매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1966년에 30세의 나이로 오스트레리아로 이민했다. 이 자매는 심한 관절염과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으므로 의사가 좀더 따뜻한 곳으로 가도록 권고했다.

로슨 자매가 처음에 오스트레리아 서쪽의 인도양 해안선에 있는 큰 도시인 퍼스에 정착했을 때 지방 극장 공연팀에서 말일성도들을 만났다. 무대 책임자의 직책을 맡았을 때 그 단체의 매니저와 주연 남자 배우가 말일성도였다.

로슨 자매는 그 단체가 리허설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마다 그 매니저가 단원들을 모아 놓고 기도드렸던 일을 회상한다. “나머지 단원은 회원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항상 무대에 나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곤 했으며 웬지 이것이 올바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곧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고가 있었으며 로슨 자매는 곧 침례받았다. 원래부터 열성적인 성격을 타고난 로슨 자매는 퍼스에서 와드 및 스테이크 연극 책임자로 봉사했으며 완전히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마침내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의사가 그녀에게 기후가 훨씬 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오스트레리아의 북쪽으로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때 이후로 로슨 자매는 늘 쿠누누라에 살았으며 그곳에서 임상병리과 기사로 일하고 있다.



왼쪽:빅터 하버의 해안 지방에서 최근에 발견된 최초로 오스트레일리아에 과견된 말일성도 선교사인 윌리엄 브렛의 무덤.
 중앙:만 너머로 본 퍼스 모습. 상단 오른쪽:밀페라 근교 시드니에 있는 조지 강에 위치한 아 골짜기는 1920년대에 침례가 배풀어지던
 장소 중의 한 곳이다. 중앙 오른쪽:퍼스 제3와드의 초등학교반. 다음 페이지:빅토리아 다리 너머로 본 브리스베인, 삽입:브리스베인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드 스테이크 빈레이 와드 예배당

로슨 자매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고 영성을 쌓기 위하여 쿠누누라로 이사했을 때 스스로 몇 가지 표준을 세웠으며 그 이후로 늘 그 표준을 지켜 왔다. 로슨 자매는 매일 표준 경전을 이 장 내지 삼 장을 읽고 그 각장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 또 구할 수 있는 교회 출판물은 전부 다 읽는다. 로슨 자매는 “교회 잡지는 모두 다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로슨 자매는 매달 두번씩 700킬로미터나 떨어진 다윈시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는다. 다윈시는 오스트렐리아의 광대한 북쪽 지역의 교회 활동의 중심지이다. 그 전화는 함께 보내주는 상호부조회 및 주일학교 공과 교재 복사본과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원기를 복돋아 준다.

일반적으로 로슨 자매는 육 개월에 한번밖에 성찬을 취할 기회가 없다. 직장에서 쉴 시간을 얻을 수 있을 때에는 지방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윈까지 여행하는데 그 주말 여행은 항공 요금이 미화 350불[약 30만원]이 든다. 때때로 선교부장이나 기타 신권 소유자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로슨 자매는 가끔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축복을 부탁한다.

광업 관계 직원은 곧잘 이사를 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다른 회원들이 쿠누누라에서 잠시 거주하기도 한다. 회원이 한 사람만 더 생겨도 로슨 자매에게는 “지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기에 충분한 숫자이다.

격리된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녀의 충고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친구가 되라”는 것이다.

“정규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그분이 진짜 친구인 것처럼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른 비회원들과 친분을 맺는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표준을 변경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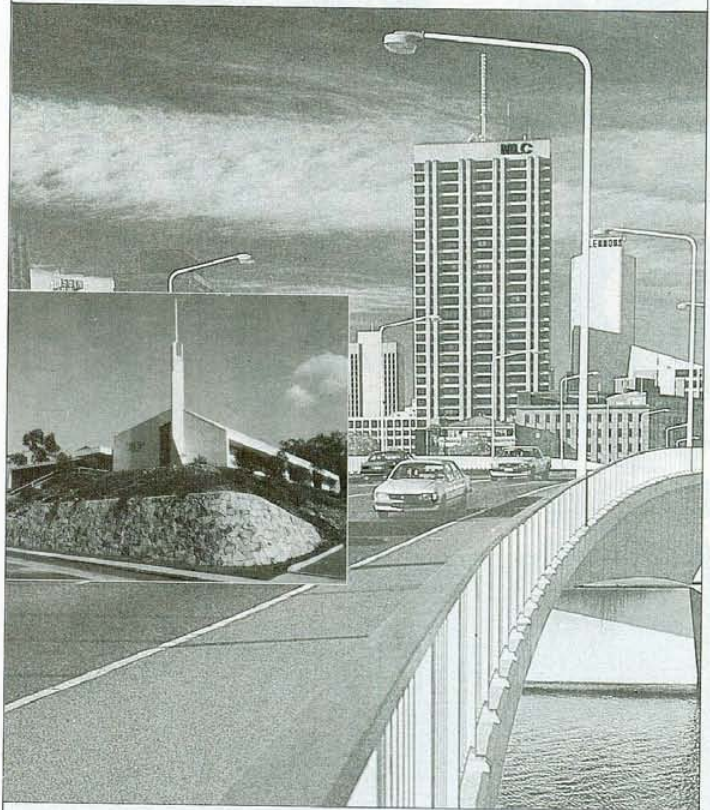
로슨 자매는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로슨 자매는 지역 극장 단장이며 지역 발전 위원회 재무 책임자이며 마을의 문화 협력 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로슨 자매는 휴가 기간에 런던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시드니 성전으로부터 3,200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여행하기에는 너무 멀다. 그러나 로슨 자매는 쿠누누라에 하나밖에 없는 계보 협회를 최근에 설립했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대성 기후 지역에 있는 성전에서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다.□

오스트렐리아

이십 세기의 전반기

마조리 에이 뉴턴



오

스트렐리아인 말일성도인 봄 러브와 매기 헨리는 1929년에 결혼했으며 그 지방의 장로교 목사의 교회에서 그의 주례로 식을 올렸다. 그런 다음 이 신랑 신부는 앤모어 말일성도 지부 건물로 가 그곳에서 클래런스 에이치 텡기 선교부장이 선교부 연말 보고서에서 “확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여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러브 부부는 당시의 여건으로는 수많은 말일성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한 것이다. 가장 가까운 성전이 거의 10,000킬로미터나 떨어진 하와이에 있었으며 한 쌍의 왕복 여비는 몇 년 치 봉급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당국에서는 말일성도가 결혼식을 주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브 부부나 그 이외의 말일성도들도 다른 교회나 정부 등록 사무소에서 일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52년이 되어서야 러브 부부는 다섯 자녀를 데리고 솔트레이크 성전에 가서 인봉받을 수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차 대전 이전에 오스트렐리아에서 살았던 수많은 말일성도 부부라면 누구나 겪었던 전형적인 일화이다. 성도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실은 이십 세기 초의 수십 년 동안 오스트렐리아의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이야기되는 주제 중의 하나였다.

우리 교회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써 자주 언급되었던 것은 오스트렐리아에 교회 건물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2년에 마침내 멜버른 예배당이 지어지자 빅토리아 주 정부는 마침내 말일성도가 결혼식을 집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했다. 오스트렐리아의 다른 주에서는 오랜 후에야 그런 결정을 내렸다. 오스트렐리아의 첫 교회 건물은 1904년 브리스베인에 세워졌으나 퀸랜드 주 정부는 1929년까지 말일성도 결혼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드니의 엔모어 예배당은 1924년에 세워졌으나 1931년까지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는 말일성도 결혼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배당 건축이 교회를 오스트렐리아인 생활의 영속적인 한 부분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했다. 자기 자신의 예배당을 가져 봤으면 하는 것이 모든 작은 지부의 꿈이었다. 교회 본부에서 건축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해 주었으나 그 나머지 금액을 모으는 것이 지부로서는 굉장한 힘들 때가 많았다.

오스트렐리아에서는 이십 세기 전반기가 교회의 완만한 성장 기간으로 생각될 때가 흔히 있으나 선교사의 수가 적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결과가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다. 거의 팔백만 평방 킬로미터나 되는 나라에 전도할 선교사가 이십 명도 안될 때가 대부분이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과 1930년대의 대 경제 공황의 여파도 컸다. 오스트렐리아 선교부의 교회 회원 숫자는 천천히 그러나 착실하게 성장해서 1901년에 328명이었던 것이 1951년에 2,396명이 되었다.

1920년대 말경에는 대부분의 지부가 교회의 모든 보조 조직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성장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회원들이 함께 일하며 때로는 동시에 여러 보조 조직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가족적"인 느낌이 커졌다.

1930년부터 클래런스 텅기 선교부장은 가능하면 지역의 신권 소유자에게 지부장단의 부름을 주어 복음 선교사는 이

상단: 소년단 대장인 스티브 잭슨이 퍼스 제8와드에 있는 소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중앙: 1908년 경에 엔모어 페벌가에 있는 이전 오스트렐리아 선교본부에 있는 교회 회원들. 하단: 퍼스 제3와드의 율겐 반주자인 리베카 리디코트.

직책에서 해임하여 그들의 시간을 전도 사업에 모두 다 바칠 수 있게 했다. 지역 형제들이 이렇게 행정적인 경험을 얻음으로써 10년 후 세계 이차 대전이 벌어져 모든 미국인 선교사들이 귀국 조치되었을 때 많은 오스트렐리아 지부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대여섯 명의 오스트렐리아 청년이 장로로 성임되어 일 년 내지 이 년 동안 복음 선교사로서 주로 자기 나라 안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타스마니아의 글렌 후은 출신인 오스왈드("오시") 왓슨이 1930년에 뉴질랜드 선교부로 부름받았으며 그가 맨 처음으로 해외에서 봉사하는 오스트렐리아 출신 선교사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멀리 힘든 여행을 했으며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은 더 심했다. 현대적인 여객선을 타고 오스트렐리아까지 가는 데 여러 주가 걸렸다. 일단 선교부에 도착하더라도 지명받은 선교 지역까지 가는 것도 어려웠다. 이차 대전 이전까지는 전근할 때는 대부분 해안선을 따라 기선으로 갔다. 나중에는 퍼스로부터 시드니까지 전국을 횡단하려면 며칠 동안 밤낮으로 가야 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철로의 폭이 달라서 기차를 바꿔 타야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선교부장 부부가 이렇게 멀리 흩어진 지방부와 지부를 다 방문하려면 여러 달 걸렸다. 퍼스 지부는 일 년에 한번 선교부장을 볼 수 있을 경우 대단히 운이 좋은 것으로 여겼다.

선교사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면 지부가 조직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외딴 곳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시골길을 여행했다. 장로들이 성찬을 집행하였고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도움을 주었다. 한 동안은 선교본부에서 이런 외딴 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일학교 통신 과정 공과를 보내 주었다. 성도들 사이에 가로 놓인 이런 거리로 인한 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텅기 선교부장은 1920년에 작은 월간지를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영국에서 출판했던 밀레니얼스타를 본딴 것이었다. 이 오스트렐스타는 1958년 12월까지 정기적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1939년 9월에 발발된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오스트렐리아에서 교회 발전이 늦어졌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불려 갔다. 식량, 의복, 휘발유의 공급이 배급제로

바뀌었고 여행도 제한을 받았다. 그러던 중 1940년 10월 14일에 제임스 저드 선교부장은 대관장단으로부터 선교사를 모두 귀국시키라는 전보를 받았다.

엘본 더블류 옴 신임 선교부장은 전쟁 기간 동안 이 널리 퍼진 선교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 젊은 멜버른 출신의 장로인 프레데릭 이 허스트가 도움을 주도록 부름받았다. 수많은 작은 지부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선박은 대부분 군사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할 수 없었던 교회 자료를 헌신적인 자매들이 오랜 시간 동안 타자를 쳐서 지부로 부쳐주었다. 대 침공에 관한 소문이 떠돌게 되자 옴 선교부장은 말일성도 어린이들을 시드니로부터 철수시킬 계획을 세웠다. 몇 주 후 시드니 항구와 가까운 외곽 지역은 함포 사격을 받았다. 습격의 위협이 걷히기까지 약 서른 명의 어린이가 서쪽으로 400킬로미터 떨어진 그렌펠에 머물고 있었다.

이 선교부가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원상복귀하는 데 여러 해가 걸렸다. 그것은 선교사와 교회 출판물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0년에 선교사 수가 전쟁 이전의 두 배 이상이 되었으며 개종자 침례 숫자도 극적으로 늘어났다. 이 숫자는 한국 동란으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온 선교사의 수가 줄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금세기 들어서 이십 년이 지난 후에야 오스트렐리아에서 말일성도의 수가 천 명에 도달했으며 다시 이십 년이 흐른 후에 이천 명이 되었다. 1942년부터 1950년 사이에는 이 숫자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나 삼천 명에 도달하는 것은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사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1955년에 오스트렐리아를 방문한 이후 이런 급상승에 새로운 추진력이 더해졌다. 그는 현대식 예배당과 항공 여행이 필요하다는 것과 선교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러 부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오스트렐리아의 신권 소유자들이 더 중요한 신권 책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필요 사항과 능력에 교회가 부응하고 그 이후로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1960년대에 오스트렐리아에 첫 스테이크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오스트렐리아에는 70,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조종받지 않는

래리 케이 랭글로이스

얼

마 전에 어떤 남자가 굉장한 비탄에 빠져서 나의 사무실로 찾아 왔습니다. 그는 체격이 크고 강인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신상

이야기를 하면서 몹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약 이십 년 전에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자신의 결혼 생활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아내 사이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그는 자기 와드에서 누구든지 자기들을 와드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짐을 싸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이 자기 곁을 떠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부인에 대한 깊은 반감과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가 부인의 행동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그의 아내를 강제로 그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더 불안해졌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의 말을 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인이 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부인이 돌아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는 대단히 실망한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독님도 만나고 스테이크 부장님에게도 갔다 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도와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님이 결혼 문제 전문가라고 말씀하셔서 만나러 왔는데 저를 도와 줄 수 없다고 하시는군요.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그에게 강제로 아내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는 부인이 나쁘며 심한 벌을 받아야 하며 올바른 행실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는 결코 변화하지 않았으며 그의 결혼은 와해되었습니다.

자유 의지에 대한 강제 : 영원한 갈등

수많은 결혼 생활의 분쟁에 있어서 중심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지와 강제 사이의 영원한 갈등입니다. 경전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 원리는 별로 많지 않으며

이보다 더 널리 인식하고 이야기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보다 더 널리 잘못 이해하고 남용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모세서 4장 1절에서는 천국에서 모반이 일어난 것이 자유 의지와 강제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사탄은 경쟁이 되는 계획을 제시하고 이렇게 뽐냈습니다.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전쟁이 벌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이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던지움을 받게 하였더라.”

자신이 복음 원리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충실한 교회 회원의 결혼이 천국 전쟁을 벌이지게 했던 바로 이 문제 즉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과 강제하는 것에 의하여 약해지고 손상을 입고 파괴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배우자에게 강요하려 하는 방법이 최소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육체적인 힘의 사용

첫 번째이며 또 가장 분명한 강제 수단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과 폭력은 주님이 반복해서 정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기 전에 체포할 때 주님의 종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군인 한 사람에게 휘둘러 그 사람의 한쪽 귀를 잘라 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군인을 고쳐 주시고 그 종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 26 : 52)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폭력을 비난하셨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가운데 배우자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일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내가 맞을 것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부인을 때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부인이 맞을 만한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든지 안들든지 부인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에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자 우리는 그 부부의

결혼



장

기적으로는

강제 수단은 항상
실패합니다. 사랑과
신의와 충성은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다른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읍니다.

배우자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 위하여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폭력은 어떤 결혼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신권 권능을 잘못 사용함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려고 할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좀더 교묘하며 따라서 다루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신권이나 자신의 부름이나 직책, 또는 족장으로서의 반차로 인하여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경전에서 분명하게 또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21편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배웠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사소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자마자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다.”

신권과 족장의 반차는 자유의지가 보장된 분위기 안에서만 합당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21편 46절에서는 권능을 합당하게 사용하면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내게로 흘러 들어가리라.”

우리가 신권 권능을 강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에게 신권이 있으므로 자기 가족은 자기가 하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릇된 주장을 합니다.

또 한편 교회에서 일부 여성들은 자기 남편이 그들의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강요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모반했을 때 행하려고 했던 것 즉 의의 원리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항상 배척해 오셨읍니다.

3. 더 높은 권능에 호소함

사람들이 강제하는 세번째 방법은 더 높은 권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뜻에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경전이나 교회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복음 원리를 들이댁니다. 이렇게 조종하기 위한 술책을 진실한 종교적인 느낌을 합당하게 표현하는 것과 혼동하면 안됩니다. 자기의 이런 술책은 자신의 뜻에 순응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경전이나 교회 총관리 역원의 이름이나 말씀을 진실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회원인 부부와 카운슬링하고 있었읍니다. 부인은 교회에 대하여 헌신적이었읍니다. 남편은 교회 모임에 비교적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으나 현재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고 싶은 열의는 별로 없었읍니다. 그는 선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으로서 아내와 가족에게 헌신적이었으나 복음에 대한 진지한 간증이 없었으며 말일성도 생활 방식의 여러 가지 요소를 받아들이는 일에 관심이 없었읍니다. 큰 슬픔에 잠긴 부인은 남편의 교회 참여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자신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 자매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남편이 변하도록 강제하려고 노력했읍니다. 마침내는 나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 자매는 내가 열렬한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그녀의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원했읍니다. 우리가 함께 상담하는 동안 그 자매는 남편이 그녀가 의로운 원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남편이 따르도록 강제하는 데 있어서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격려하기 위하여 경전과 교회 총관리 역원과 복음 원리를 계속해서 인용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남편을 강제하는 것을 피했읍니다.

한번은 남편이 따르도록 강제하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위에서 인용한 121편을 몇 구절 인용해서 이야기했읍니다. 그 남편은 진지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씀은 아내가 저를 강제로 성전으로 데려가려 해서 안된다는 말입니까?”라고 물었읍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형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가능하다면 영원히 아내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성전에서 결혼하려고 저를 강제로 데려 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방금 읽었던 그 페이지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으며 부인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강제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게 되자 그들의 사랑하는 관계가 다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현재 그 남편이 복음대로 생활할 때 오는 기쁨을 발견할 가능성이 사랑과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분위기 속에서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사탄의 계획의 가장 큰 결점은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일순간은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나 부부가 모두 서로에게 또 의로운 원리에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을 때에만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매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더 높은 권능에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만큼 조종한 것도 아니고 위선적이지는 않았습다. 그러나 변화를 강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이 고쳐 주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복음 원리를 위반하고 있을 때가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죄인은 누구든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셨으나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조종하기 위한 술책으로서 위선적으로 의를 논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 23:27)

부부가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술책을 의로운 원리로 가장하려고 할 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드러 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허려는 사람들을 양의 털을 쓴 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깊고 교활하며 사악한 것입니다.

4. 비판의 사용

네번째 강제 수단은 비판과 조소와 비난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극히 인간적인 예를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사이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이 옳고 마리아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비판의 근본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자기 생각대로 마리아가 따라 하도록 강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비판하시게 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가 자기가 하는 일을 돕도록 예수님이 지시하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비판을 편드시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에 찬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생각하는 우선 순위에 중 의문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마르다를 비판하시지도 않았습다. 또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행동을 바꾸도록 강제하려 하시지도 않았습다. 이것은 전세계에서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의지를 수호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맞서신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과 결점 찾기를 통하여 결혼에 큰 손상이 옵니다. 나를 만나러 온 어떤 부부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서로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관하여 이야기할 좋은 점을 생각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 동안 서로 물끄러미 쳐다보았으며 이윽고 부인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글쎄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점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상대방의 품행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했던 것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끊임없는 비판과 반대가 대신 들어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맨 처음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던 그 감미롭고 사랑에 찬 관계를 다시 얻으려면 서로에 대한 비판적인 잔소리와 또 상대방이 변화하도록 강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수

많은 충실한
교회 회원의 결혼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과
강제하는 것에 의하여
약해지고 손상을 입고
파괴됩니다.

5. 개인적인 강인함을 이용함

상대방이 자기 뜻에 따르도록 강제하려고 하는 다섯번째 모습은 자신의 개성의 강인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쪽이 상대방보다 더 자신감에 넘치고 고집이 센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그 약한 사람이 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상황은 강자에게는 편안하겠지만 약자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심한 반감과 분노가 쌓이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이런 감정이 당장 표면화되지는 않으나 이런 상황은 한쪽 편으로는 우울과 무관심을 또 다른 쪽으로는 미묘하게 숨겨진 보복을 유발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은 매우 깨지기 쉬운 결혼 생활로 연결되며 약자는 가능한 한 오래 참을지 모르지만 그런 다음 절망에 잠겨 떠나 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종류의 결혼 생활은 특히 되돌이키기 어려운데 그것은 그런 부부가 보통으로 너무 늦어지기 전에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자는 진지하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며 약자는 결혼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될 때까지는 너무 두렵거나 무서워서 문제를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강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42절 사이에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약한 여인을 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며 예수님의 힘과 자신감도 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소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아상”의 큰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하시면서 자신의 강인함을 이용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강인함뿐 아니라 자신의 성서적인 권위와 판단력을 이용하여 그녀가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시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강인함을 이용한 술책 사용을 모두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16~17절)

그녀의 대답이 잘못된 것은 분명했으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으나 그 여인을 비난하거나 그녀의 지식을 조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감정을 보호하시고 사려깊고 주의깊은 태도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심을 찌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17~18절)

비판이나 조소를 하시지 않고 조금도 강제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기 전에 자유의지의 원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셨으며 당신이 지상 생활하실 때에도 결코 그 원리를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 다음 일화는 너무나 교훈적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19절)

이 존중하며 또 세심한 태도로 인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수용적이 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복음 원리를 배웠으며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화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뛰어난 지식과 강인한 개성을 이용하여 그 여인을 압도하시는 것보다 그 여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개성의 강인함에 있어서 격차가 있을 때가 흔히 있습니다. 개성이 강한 편에서 자신의 강한 개성을 강제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될 필요가 없지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개성이 강한 사람도 배우자에게 자기 의사를 강제하기 위하여 육체적인 완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강제 수단도 심리적으로는 육체적인 수단 못지 않게 피해를 줍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뜻을 강요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성의 강인함을 이용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강한 안력을 사용하는 것 못지 않게 복음 원리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결혼을 위태롭게 하는 다섯 가지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방법을 모두 제거한다면 자신의 의로운 목적을 성취하고 배우자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어떻게 도와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이 역시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적절한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는 불의한 지배력 행사를 꾸짖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 합당한 방편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성구를 읽고 자신의 여러 가지 관계를 그 성구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제와 자유의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강제 수단은 단기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으나 반감을 유발하고 저항하게 만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은 항상 실패합니다. 사랑과 신의와 충성은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전쟁에서 주가 되는 문제였으며 이 지상 생활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며 영원히 계속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결혼 생활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제 수단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바람직한 결혼은 개인적인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서히 또 조심스럽게 쌓아 가야 할 것입니다. □

결혼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상담 전문가인 래리 케이 랭글로이스는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 스테이크에서 부모교육 반을 가르치고 있다.

열

네 명의 볼프그램 자녀에게 물몬경은 단순한 역사책이거나 경전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그들 친척의 이야기이다. 물몬경의 거룩한 내용은 그들이 88대 할아버지인 니파이를 거쳐 아담까지 연결되는 그들의 계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물몬경 연구나 물몬경에서 가르치는 소중한 가치관에 이 가족보다 더 헌신하는 가족을 찾아보려면 오랫동안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가족이

연예계에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믿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볼프그램 가족의 여덟 자녀는 “더 제츠”라는 성공적인 연주 그룹 멤버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물몬경과 가족의 단합이 그들을 연예계의 어떤 나쁜 요소로부터도 멀리 하도록 지켜 준다고 말한다.

“더 제츠”에서 노래도 부르고 타악기를 연주하는 18세의 유진은 이렇게 말한다. “연예계에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니다. 그러나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고 반드시 가정의 밤을 갖고 십일조를 내고 경전을 읽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행할 때 축복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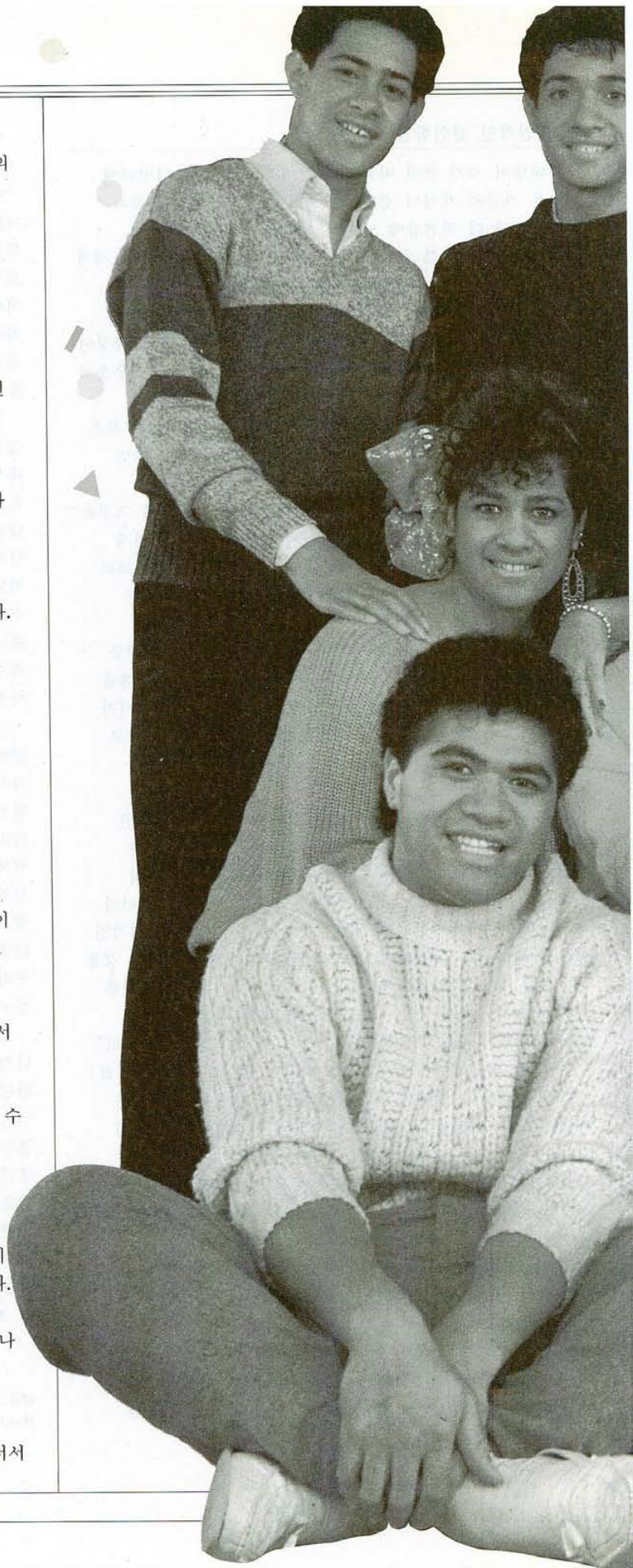
장남이며 이 그룹의 리더인 르로이도 그 말에 찬성한다.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방금 유진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순종하고 열심히 일한 오랜 세월이 걸친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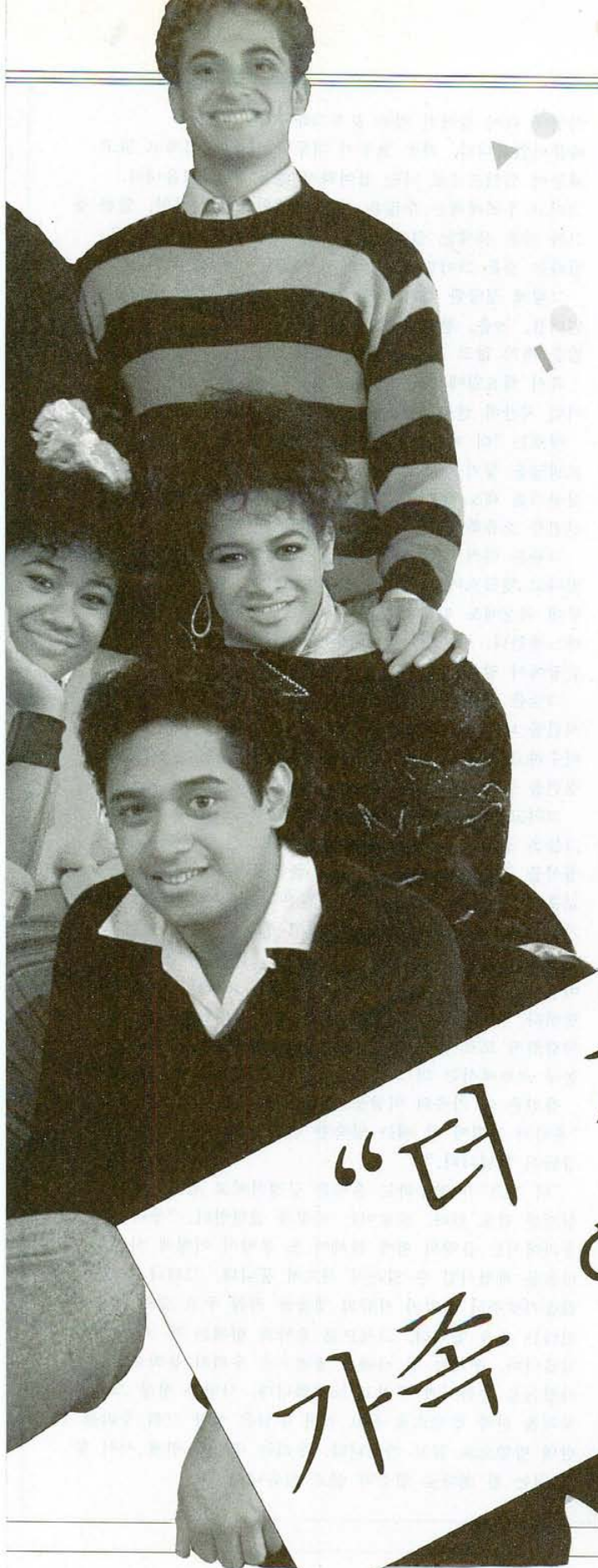
그들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물몬경에 있는 그들 조상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그들 부모인 마이크와 베이크는 약 이십 년 전에 고향인 통가를 떠나 대양을 건너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와서 살았다. 당시에 남태평양에는 성전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함께 인봉받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로 왔다. 그러나 그들은 통가로 돌아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머물렀으며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볼프그램 가족도 리하이 가족처럼 그들의 새로운 나라에서 그들의 생활을 개척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그 부모는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솔트레이크 지역에서 폴리네시아 공연 단체에서도 일했다. 자녀가 견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즉시 폴리네시아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가르쳤다. 그들은 열심히 무대에 올라섰으며 곧 그 가족은 그들 스스로의 폴리네시아 연주 그룹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음악이나 무용 레슨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부모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배웠다. 오늘날 그들은 콘서트 직전에 목청을 부드럽게 하는 것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은 독학을 한 음악가이며 그들이 신서사이저, 기타 및 여러 가지 타악기와 관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볼프그램 가족은 그들의 폴리네시아 쇼를 갖고 길에 나서서





순종과 부지런한 노력과
신앙이 한 성공적인 연주
단체를 뒷받침해 줌

“더 제츠”의 가족 역사 물몬경

리사 에이 존슨

미국과 캐나다의 전 지역을 여행했다. 그들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어떤 하와이 호텔 체인점에서 전속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짐을 싸서 이사했다. 미네아폴리스는 통가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볼프그램 가족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으며 그 지역 연예계뿐 아니라 그 지역 와드에도 공헌했다.

그들이 일하던 호텔 체인점이 문을 닫았을 때 그들은 낭패에 빠졌다. 그 열 다섯 명 식구가 여러 달 동안 그 호텔 주인집 지하실에서 살았다. 그들은 폴리네시아 음악 대신 대중 음악으로 바꾸는 것이 수입이 더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어디든지 연주할 수 있는 곳이면 낚고 보온 장치도 안된 유개 화물차를 타고 여행하기 시작했다. 르로이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 차에는 좌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면을 의지하여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때로는 영하 사십 도나 되는 추위 속에서 여행했으며 차 안쪽 지붕에 얼음이 얼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보상받게 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여러 유명한 연주팀의 매니저를 했던 연예계 전문가인 돈 포웰이 그들의 연주를 들었다. 그는 연예계가 “너무나 괴상”해졌기 때문에 연예계로부터 은퇴했으나 볼프그램의 연주를 듣고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볼프그램 가족을 만나기 전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접촉이 거의 없었던 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사업에 다시 들어선 것은 문자 그대로 이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너무나 사랑에 넘치고 밝고 재능이 있었으므로 나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마약, 알콜 등 그와 같은 문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매니저로 일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결과 매일 매시간이 연주, 개인 출연, 인터뷰, 녹음, 촬영 등으로 꽉 차 있으나 월요일은 가정의 밤을 하지 않고 지나는 법이 없다.

혹시 월요일에 여행 중일 때에는 무대 종사자를 초대하여 이런 시간에 선교 사업을 많이 행하게 된다.

때로는 “더 체츠”가 여행할 때 일요일 예배에 참석할 교회당을 찾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가족은 그들 자체로 성찬식을 해도 좋다는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 모든 소년이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모든 의식을 다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아직도 집에서 만든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의 옷은 빛나고 멋있으며 말일성도 표준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어떤 무대 의상에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서 어머니가 디자인하고 바느질한다. 어머니는 솔트레이크시티의 비하이브 의류 공장에서 일하면서 옷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흥분된 나날을 보내지만 그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그들의 교사를 만나고 통신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항상 경전을 공부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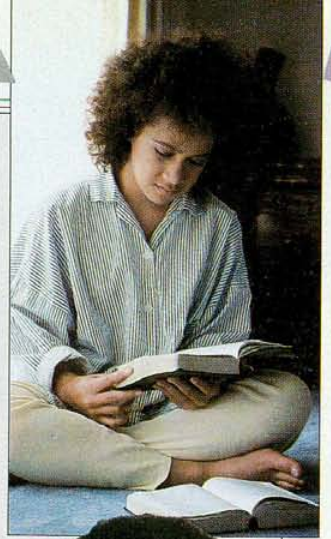
그리고 그들은 단지 경전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경전을 외우고 흡수한다. 볼프그램 가족은 교회 참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물몬경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가서 너무 심각한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요일의 사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16세된 하이나이가 말한다. 아마도 그는 볼프그램 가족 가운데서 가장 조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활력이 넘치며 특히 미식 축구 경기장과 농구 코트에서는 더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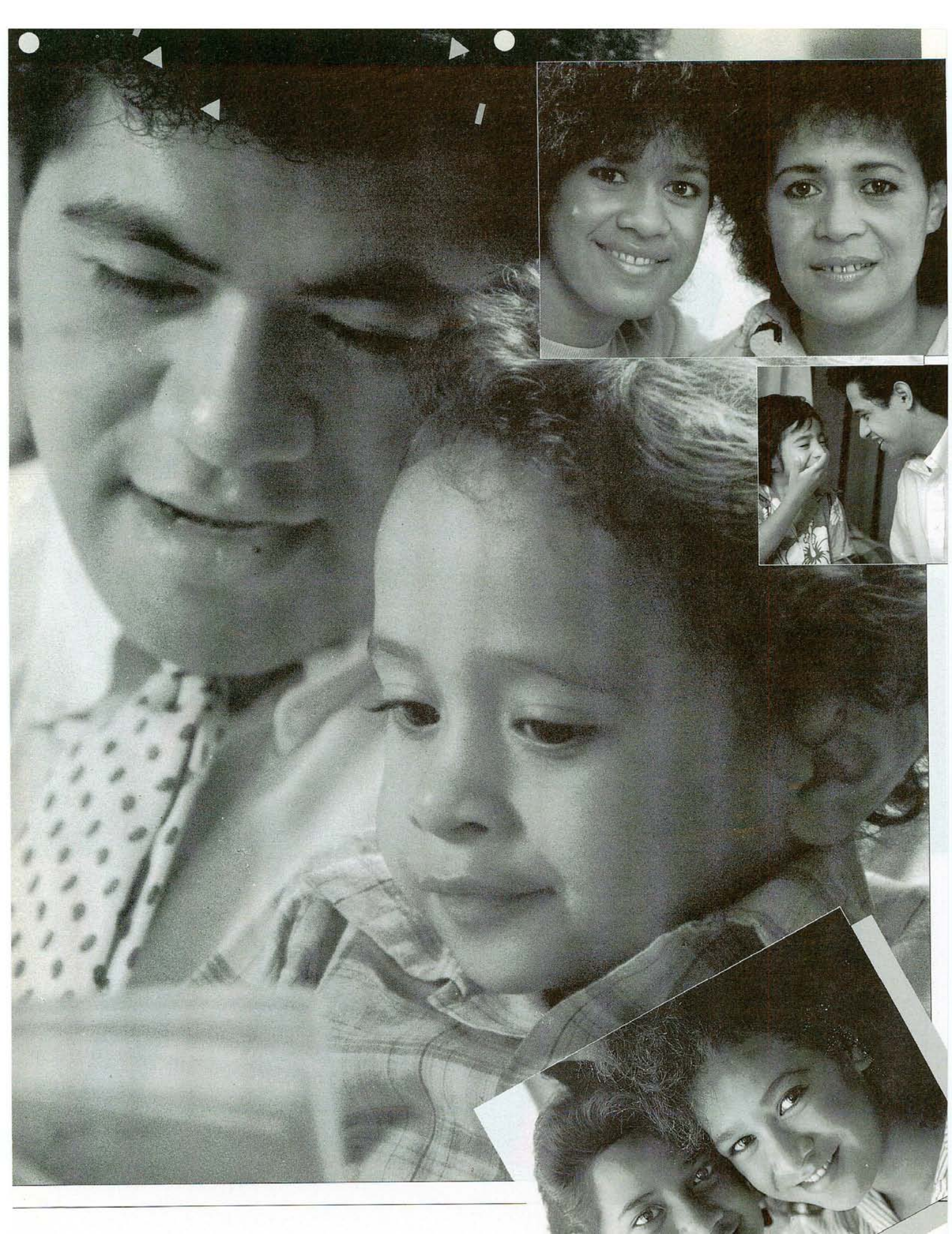
유진은 이 가족의 익살꾼으로 생각되지만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가 교회에 갈 때는 엄숙한 진실에 입각한 것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더 체츠”가 연주하는 음악은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지만 심각한 면도 있다. 르로이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교회 공과에서는 음악의 힘에 관하여 또 음악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파멸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가로부터 음악이 사람의 성품을 키워 주고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음악의 힘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의 방법으로 우리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승화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사탄은 항상 그의 무리를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며 주님은 항상 그의 무리를 그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끌고 있습니다.”

물

문경 연구에 이 가족보다 더 헌신하는 가족을 찾아보려면 오랫동안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가족은 우애가 돈독하며 언제나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이 그룹과 함께 여행하도록 노력한다. 가족 중에서 한 쌍둥이 형제를 포함하여 어린 여섯 자매는 교대로 함께 여행하며 그들도 연주할 수 있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가슴설린다.

자기 자녀 못지 않게 젊게 보이는 볼프그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가능한 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이 서로 돌봐 줍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누이를 돌봐 주며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자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부의 영향에 관하여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경전을 읽습니다. 그들이 위험한 유혹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와 내가 그들에게 평생 동안 가르쳐 준 것입니다.”라고 이 자매가 말한다.

볼프그램 가족의 생활에서 경전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전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그들 조상에게 빛을 갠으려고 한다. “우리가 받은 이 재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항상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라고 르로이가 말할 때 그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 열심히 고개를 끄덕인다. □

유

진은 이렇게 말한다.
“연예계에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정의 밤을 갖고 십일조를 내고 경전을 읽으면 축복받습니다.”



횃트니

멜빈 리비트

아 이다호주
횃트니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것은
농사를 짓고 소꼴을 짜며 들에
물을 대는 생활이며 건조를
자르고 밭을 수확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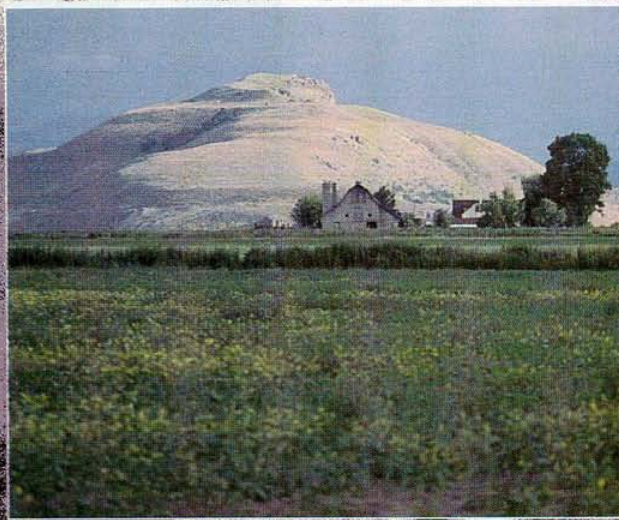
횃트니의 소년으로서
생활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저수지에서
수영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한다. 또한 성찬식에 가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강하고 참되게 성장하는
생활이기도 하다.

횃트니의 소년들은 본받을
활동적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훌륭한 모범을
많이 본다. 횃트니의
소년들에게는 지쳐 나갈
전통이 있으며 그 과거에
합당한 새로 쌓아 나갈 미래가
있다. 와드 내의 젊은이는
거의 다 선교사로 나간다.
거의 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그런 예가 또 한
사람 있다. 매우 좋은 예가
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도 횃트니 출신
소년이다.

훌륭한 작은 지역 사회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해
왔다. “나는 그 훌륭한 작은
지역 사회에서 농장에 사는



출신의 소년



벤슨 대관장은 아이다호, 휘트니에 있는, 부친의 농장에서 일하는 소년이었을 때 오늘날 휘트니의 소년들처럼 평생 습관이 된 근면, 정직, 영성을 배웠다. 농장으로부터 여러분은 조그만 산을 볼 수 있는데 이 산은 벤슨 대관장의 조부가 약탈하는 인디언들을 살피기 위해서 있었던 곳이었다.



이상적인 가족 내에서의 생활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약 10만평의 농장에서 조지 티 벤슨과 사라 던클리 벤슨 부부의 장남으로 자라났다. 그 10만평의 땅에는 보통 사탕수수를 재배했으며 가족이 보통 “티”라고 불렀던 어린 에즈라는 농작물을 돌보고 추수하는 힘든 일에 있어서 자기 몫을 다했다. 언덕에 있는 약 15만평의 밭에는 밀을 재배했으며 그는 밀을 베거나 탈곡하기도 했다.

어린 “티”가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고 또 휘트니에서 유행하던 풍속대로 서로 협동체제를 이루어 이웃의 밭에서 일하게 되자 그는 곧 열심히 일하고 기술이 좋은 일꾼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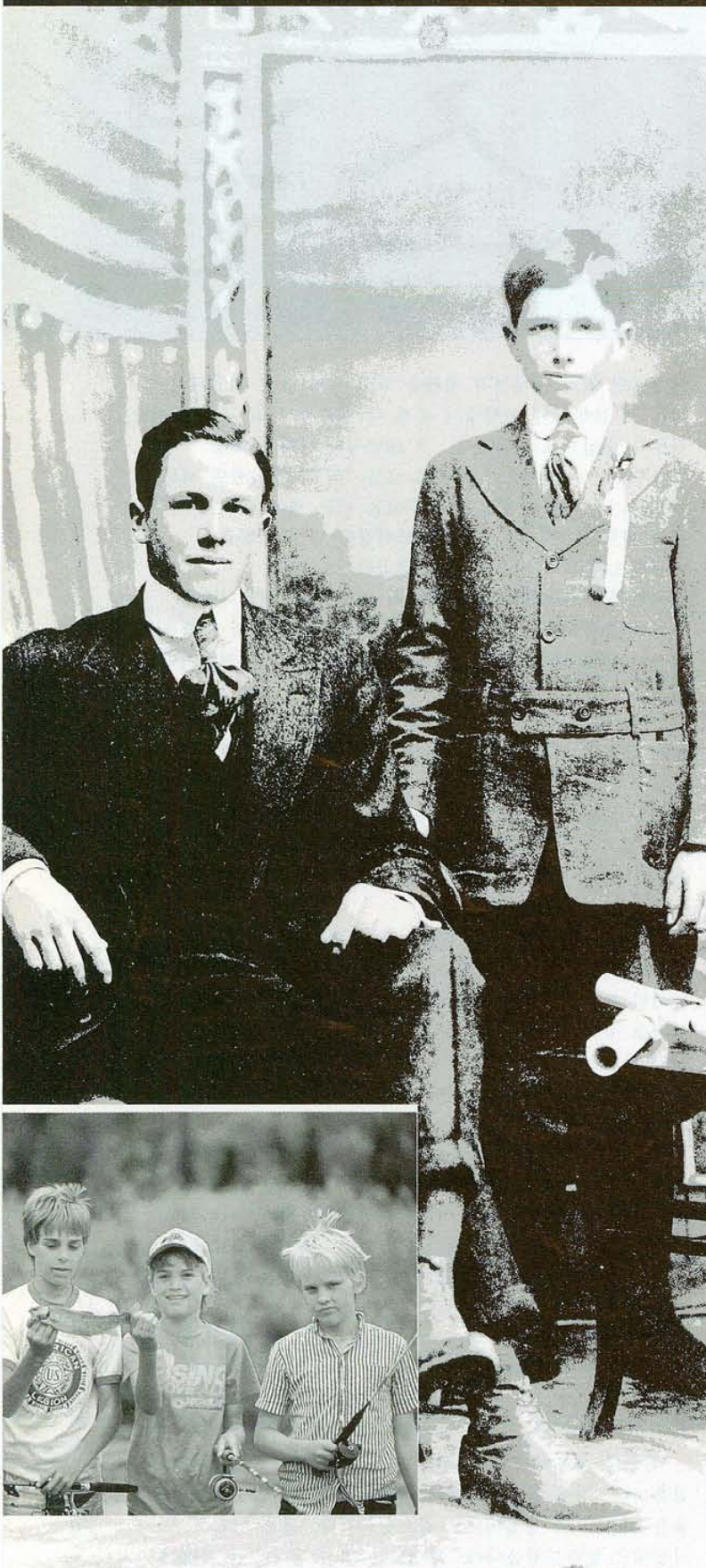
“나는 만 네 살 때 말을 한 팀 몰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타고 소떼를 몰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소꼴을 짜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자라는 성장기에 중요한 책임이 되어 언제나 나의 책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과 감자 및 사탕수수를 파 내고 풀을 싹고 헛간에 건초를 쌓는 일과 기타 농장에서 장남의 책임이 되는 모든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농사 일은 우리에게서 일요일과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계속되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기계실이나 마차를 두는 헛간에 가서 기계를 고치고 수리하며 마구에 기름을 칠고 도구와 건초를 베는 낫의 날을 세우거나 페인트칠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부친께서는 언제나 그런 날에 대한 계획을 세워 두고 계셨습니다.”

휘트니 출신의 대부분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티”에게도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다. 어머니는 뛰어난 유모어 감각과 밝은 성품으로 유명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비판하지 않고 가르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그의 사촌 조지가 “티”의 동생을 놀리는 것을 보고 말린 일이 있다.

“마침내 나는 ‘한번 더 그러면 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조를 놀렸으며 그 결과 우리는 격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서 싸우다가 흙먼지 속에서 덩굴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지의 코피를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싸움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내 손과 셔츠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웬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동생을 보호해 준



것을 비판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티”야, 빵을 좀 구우려고 하는데 마침 이스트가 떨어졌구나, 네가 롤루 숙모(조지의 어머니)에게 가서 좀 얻어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조지와 금방 싸우고 왔는데 그 심부름은 시키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이스트가 있어야 해. 나는 네가 롤루 숙모에게 가서 좀 얻어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티”는 숙모댁에 가서 조지를 만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관하여 설교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새 빵과 버터

사라 벤슨은 또 다른 면에서도 뛰어났다. “어머니는 훌륭한 주부이며 요리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맛있게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소년 시절에 부엌에 가서 빵굽는 냄새를 맡곤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를 졸라서 빵의 윗 껍질을 뜯어 내서 버터를 발라 먹곤 했습니다. 때로는 한참 졸라대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즈라의 부친인 조지 티 벤슨은 근면하고 정직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그 지역 사회의 지도적인 시민일 뿐 아니라 감독단과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했다.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회상한다. “부친께서는 언제나 민첩하셨습니다. 나는 부친이 모임에 늦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한번도

상단 :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동생인 오벌과 함께 한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앉아 있는 사람). 하단 : 벤슨 대관장이 소년 시절에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소년들도 여전히 컵 강가의 윌로우 플라처에 낚시질 할 시간을 내고 있다.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차가 농장을 떠나 교회로 출발할 시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때때로 가족 가운데 누가 늙은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는 정한 시간에 천천히 마차가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마차에 타고 있는 가족과 함께 가기 위하여 준비도 안된 채로 마차를 향하여 달려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티”는 소년 시절에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편의 시설을 별로 갖고 있지 못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부엌에 큰 양철 목욕통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목욕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물은 부엌 난로에서 데웠습니다. 늘 누이들이 먼저 목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년들이 그 물이 담긴 목욕통을 들고 나가서 부어 내버리고 깨끗한 물을 붓고 나서 목욕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특별한 행사에 갈 때에는 특별한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티”는 아버지가 집에 전기와 수도를 놓을 때 도와드리곤 했다.

벤슨 가족은 계속해서 식구가 늘어나서 자녀가 열 한 명이 되었다. “우리 가족이 늘어나자 자연히 우리 집도 증축했습니다. 이층의 큰 침실에는 우리 남자 형제 다섯 명이 살았습니다. 가족이 많아지자 두 소년(보통 큰 아들이)이 부엌쪽으로 지은 칸막이 한 베란다에서 잤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눈이 얇게 덮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건강했으며 전염병이 퍼질 때 말고는 크게 아픈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천연두,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을 앓았던 기억이 납니다. 맨 처음 한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면 우리는 그를 한 방에 격리시켰습니다. 곧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천연두 환자가 생겨서 마침내 방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 모두가 천연두에 걸렸으나 모두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우애와 사랑이 크게 넘쳤습니다.”

충분한 즐거움

헛트니 출신 소년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즐거운 일도 얼마든지 있었다. “우리는 수영, 스케이트, 승마를 하러 다녔습니다. 또 우리는 산에서 소떼를 모으는 등과 같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나는 동물을 특히 말을 좋아했으며 보통 어떻게 해서든 내 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즐거운 일은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캠핑이나 낚시나 사냥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하여 감탄할 때 커다란 화평과 영감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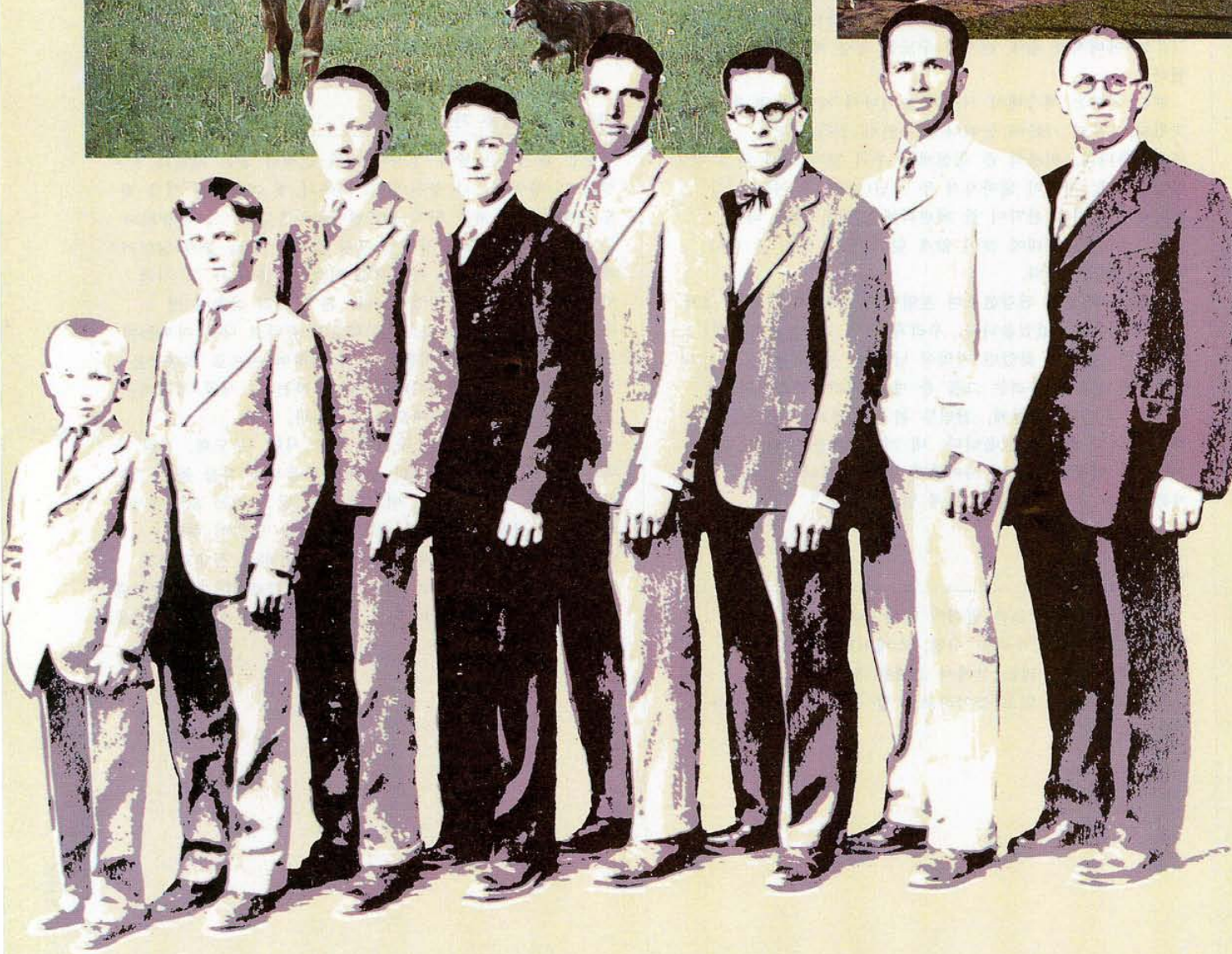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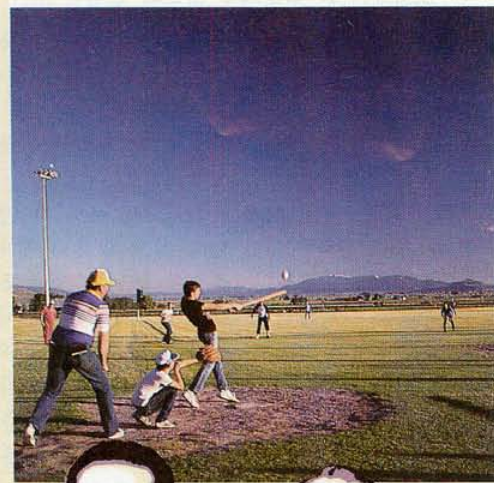
“우리는 농구와 야구도 했습니다. 농구는 내가 소년이었을 때 청년, 소년, 부모님들이 모두 좋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일곱 아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구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마당 한쪽 구석을 농구장으로 써도 좋다고 하신 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부친은 이웃의 어떤 가족이든지 농구 시합을 하자고 도전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도전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우리에게서 다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맨 처음 가져본 차

벤슨 대관장은 말을 좋아했고 또 언제나 좋은 차보다 좋은 말을 더 좋아했으나 부친이 그 가족의 첫 자동차를 샀을 때 흥분했다. “그 차는 닷지 1915년형이었습니다. 그 자동차의 구조는 단단했으나 당시에 스프링 장치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초를 나르는 마차처럼 덜컹거렸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는 차가 극히 적었습니다. 존 던클리 삼촌이 맨 처음으로 차를 샀습니다. 주일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모두 모여 서서 그가 시동을 걸기 위하여 손으로 크랭크를 돌리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시골 지역에는 포장된 도로는 어떤 곳에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농구 시합, 무도회, 기타 여행을 즐기기 위하여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우리는 로건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로건 남쪽에는 낮은 언덕이 하나 있었으며 나는 이 특별한 토요일에 우리 차를 꼭대기까지 몰고 가서 스피드를 올려 시속 팔십 이 킬로미터까지 속력을 냈습니다. 부친과 헛트니 워드 회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벤슨 대관장은 그의 형제들인(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코 "벤", 로스, 조지, 벨도우, 오벌 및 조셉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에즈라와 아버지인 조지가 오른쪽에 있다.

때 그들은 내가 감히 그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것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그 자동차가 실제로 그렇게 빨리 달리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당시에 나와 함께 있었던 다른 소년들의 증언을 통하여 내가 주장한 것을 입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력은 당시에 그 지역 사회에서는 최고 기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티”는 교실이 세 개 달린 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나는 여덟 살에 국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서 열 네 살에 마쳤는데 나이에 비해서 체격이 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촌에서 소년으로 자랐던 시절에 우리는 보통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이나 겨울이 되면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거나 겨울이 되면 말 한 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갔습니다.”

고등학교의 새 친구들

그 후에 그는 프레스턴 근처의 오네이다 스테이크 아카데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나는 왕복 이십 오 리를 말을 타고 다녔으며 날씨가 나쁠 때에는 아침 여덟 시 수업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가끔 학교가는 대신 농사일을 돕기 위하여 집에 머물러 있었으며 특히 가을에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봄에는 파종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 아카데미에서 “티”는 중요한 평생의 벗을 얻었는데 바로 “티”처럼 마침내 교회 대관장이 된 해롤드 비 리였다. “해롤드와 나는 오네이다 스테이크 아카데미에서 같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의 첫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했습니다.”

“티”는 나중에 유타 주립 대학에서 농구 스타가 된 것처럼 고등학교 농구팀에서도 스타가 되었다. 그의 부모와 가족은 언제나 시합에 와서 그를 응원해 주었다. 어떤 시합에서 “티”의 적수는 매리온 지 롬나라고 하는 젊은이였는데 그는 나중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될 사람이었다.

윗트니같은 작은 물론 마을에서는 종교는 누구나 생활의 한 필수 요소였다. 종교가 바로 지역 사회 존재의 핵심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과 십일조와 헌물을 내는 데 있어서 완전히 정직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라고 벤슨 대관장은 자신있게 선언한다. 그는 부친이 십일조를 내는 것과 50달러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을 자주 회상한다. 그는 십일조를 냈으며 곧 그가 만든 건초 들어올리는 기구를 50달러에 사겠다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제의를 받았다.

조지 티 벤슨이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복음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되었다. “부친께서 선교사로 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열 세 살 가량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일곱 자녀를 맡겨 놓고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부친이 선교 지역에 도착하고 닉 달이 지났을 때 여덟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께서 불평하시는 말을 들어 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아버지를 잘 받들어 주셨습니다.”

선교 사업의 영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는 정말로 축복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 어린이에게는 지구 반 바퀴 저쪽에서 온 것같이 느껴졌으나 사실 그 편지는 우리 나라 저쪽 편에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집에는 선교 사업의 영이 들어왔으며 결코 그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부친이 돌아오셨으며 우리가 매일 앉아서 우유를 짜고 있을라치면 아버지는 ‘너 이스라엘 장로는’, ‘애통하는 이스라엘’, ‘신권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아’, ‘주 위해 부름받은 자’를 끝없이 반복해서 부르셔서 마침내 나는 이 훌륭한 선교사 노래의 가사를 전부 다 외웠습니다. 오늘날 나는 아버지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불러 주신 이 훌륭한 노래를 부를 때에는 찬송가가 필요없습니다.”

윗트니 출신의 대부분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티”도 직접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 앉아서 귀환 선교사들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이 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박해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그의 어린 가슴 속에 타오르는 선교사의 불길에 부채질해 줄 따름이었다. 나중에 그는 스테이크 축복사에게 축복받으러 갔다. “텔리 형제님이 나의 머리에 매우 천천히 축복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에는 한 소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상의 여러 나라에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이며 음성을 높여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들이 교회로 오도록 도움을 준 나의 영향력 때문에 나의 이름을 축복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물론 이것은 내가 충실할 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것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리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왔을 때 “티”는 영국 선교부로 가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벤슨 장로의 결실이 많은 선교 사업의 시작은 윗트니 출신의 한 소년에게 대한 이 이야기의 종말의 시작이다. 이 소년은 이 년 반 후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미 소년이 아니라 시련받고 단련된 청년으로서 왔다. 그는 윗트니 지역에서 몇 년 더 지냈으며 탁월한 소년단장으로 봉사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부인과 결혼하고 성장하고 학문을 닦았으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 벤슨 형제와 벤슨 장로와 벤슨 대관장은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이 끝난 적이 없으며 옛날에 다니던 와드를 방문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으며 옛날 친구들을 방문하는 것을 그만 둔 적이 없었으니 그것은 윗트니 출신의 한 소년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

